

【특 집】

이수형과 만선일보*

최현식**

┆ 차 례 ┆

- I. '이수형'이라는 문학적 기호가 말하는 것
- II. 이수형·만주(국) 시대·글쓰기의 좌표
- III. '동인'이란 제도·만선일보·조선(인) 문화·미의 윤리
- IV. 나르시스의 '가설' 공간, 성모-창부의 '시가'와 옥이의 '방'
- V. '초현실'의 포에지, '김기림'-'서정주'의 '아브노-말'
- VI. 결어: 이수형의 잃어진 시간과 텍스트를 위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은 『만선일보』에 실린 시인 이수형의 시와 산문, 평론의 가치와 의미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만주홍보협회'의 일원이었던 『만선일보』는, 첫째, 만주국의 정책과 이념을 선전하는 국책 홍보의 기관이자, 둘째, 그를 위한 만주 조선문학의 건설에 지면을 제공한 개척문학의 산실이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만선일보』는 이수형이 실질적 리더였던 『시현실』 동인집을 게재했다. 이때 제출된 시에서 이수형은 당대의 만주(도시의 거리) 현실을 군사 권력과 상품이 지배하고 억압하는 공간으로 파악했다. 시인은 일제 치하 만주국의 폭력성과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해 초현실주의 방법에 기반한 도시의 거리, 나르시스, 창녀,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새로이 창안했다. 그럼으로써 만주국에 이주하여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조선인의 고통과 좌절, 그 가운데서의 가냘픈 희망을 입체화했다. 이후 조선 경성에서 발행되는 잡지 『조광』에 고향의 산천과 인물을 기억하고 약자들의 삶을 위로하는 '향토' 풍의 시를 실음으로써 초현실주의적 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48910)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의 전통과 가능성을 노래하는 저항 의식을 드러냈다. 자신의 '초현실주의'론을 주장하는 평론에서는 현대적 에스프리를 잘 드러내는 이미지와 리듬의 발명과 표현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그 예로써 건강하고 명량한 '오전의 시'를 주장한 선배 시인 김기림과 랭보식의 짙은 '허무'를 노래한 젊은 시인 서정주를 들었다. 하지만 『만선일보』에서는 그 자신과 신문이 목표했던 서로 다른 이념과 형식의 만주 조선문학의 건설과 확장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만주'에 관련된 작품이 시와 산문, 평론을 모두 합쳐 8편에 지나지 않았으며, 1943년부터는 여러 지면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제어: 이수형, 만선일보, 만주국, 만주 조선문학, 『시현실』 동인, 『전형』, 초현실주의

I. '이수형'이라는 문학적 기호가 말하는 것

이수형(李瑋, 1914~?)은 아직도 한국문학사에서 낯선 이름에 속한다. 이용악과 동갑이라는 사실로 1914년생¹⁾임이 확인되는 그는 함경도 경성(鏡城)에서 나고 자랐다. 청년기인 1933~35년 북선(北鮮)의 성진, 흥남, 양양 등지에서 사회주의 혁명 지향의 적색농조·노조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고된 옥살이를 치렀다.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다가 1940년 3월 『만선일보』에 「백란(白卵)의 수선화(水仙花)」를 발표하고, 동인 『시현실』의 핵심자로 활약하며 재만 조선인 문단의 눈과 귀를 불러 모았다. 그러나 1942~43년 '초현실'과 멀리 떨어진 채 '향토색' 짙어 '동양'(제국)과 '조선'(전통)의 경계를 오히려 미묘하게 흐트리는 3편의 시를 남선(南鮮)의 잡지 『조광(朝光)』에 발표한다. 해방 후 사회주의자로서 박헌영의 남로당 산하 문화공작대로 맹렬히 활동하다가 한국전쟁 두 달 전 전격적으로 월북한 뒤 시와 산문 등을 발표하다 1960년대 이후 숙청으로 가뭇없이 사라져 갔다.²⁾

1) 이수형, 「용악과 용악의 예술에 대하여」, 이용악, 1949, 『이용악집』, 동지사, 159쪽. "인젠 용악도 나도 서른다섯 해나 지내 왔건만~"에서 두 시인이 동갑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해방기 문화공작대 활동과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존재한다. 분단이 거의 고착됐다 해도 좋을 1948년, 그는 4월에 정지용, 김기림과 더불어 문맹(文盟)시지부 주최 〈반일민족문화 옹호 「시의 밤」〉에 출연했다(「내외 문화 소식, 「시의 밤」 금야(今夜) 7시부터」, 『조선중앙일보』 4월 24일자). 또한 『자유신문』(12월 30일자) ‘문화총결산’ 코너 「시단, 신인의 활동, 질은 저하」(김병택)에도 그 이름이 보인다. 이수형은 “난해한 시로 유명한”데 그것은 “표현 부족” 탓이라는 비판과, 그가 근간에 새 시집 『산맥(山脈)』을 헌문사(獻文社)에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³⁾ 4월이라면 지용과 기림이 좌익문학 활동을 반성하며 ‘국민보도연맹’(1949년 4월 결성)에 전향서를 제출하기 꼭 1년 전이며, 12월의 “난해한 시” 운운은 이수형이 당시 발표하던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선전·선동의 시⁴⁾ 외에도 여전히 ‘초현실’의 시풍을 독심 있게 견지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렇듯 진보적 시와 이념의 혁명성을 지지하지 않고 밀고 나간 이수형은 ‘만주(滿) 시대’: 시 9편, 산문 1편, 평론 1편, ‘해방기’: 시 7편, 산문 1편, 미술 및 문학 평론 각 1편의 소작을 남겼다. 시에 한정한다면 총 16편의 과작은 한국문학사의 빛나는 성좌로 등재된다거나 독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어딘가 미진했다. 게다가 해방기 시편은 「아라사 가까운 고향」을 제외하고는 그 이념성과 목적성이 지나치게 두드러졌다. 이 점, 이수형의 미학적 정점이 선배 세대인 『삼사문학(三四文學)』의 ‘절연의 논리’와 만주국 일대 도시의 분열적 상황을 결합하여 생산한 ‘사회성 질은 초현실주의’⁵⁾에서 찾아지는 근본적인 까닭이다. 하지만 저 미학적

2) 새로 정리된 이수형의 생애와 작품(명)은 오양호, 2022, 『1940년대 전반기 재만 조선인 시 자료집』, 역락, 15-111쪽과 오양호, 2021, 『1940년대 전반기 재만조선인 시 연구』, 역락, 187-191쪽 참조. 뒤의 책에 북한에서 1957~1964년 사이에 쓴 시, 산문, 평론 총합 11편이 목록이 실려 있다.

3) 『조선중앙일보』 기사에는 세 시인 외에도 박산운, 이병철, 김상훈 등의 ‘전위 시인」(『전위시인집』, 1946)과 좌파 시인 설정식, 상민, 임학수 등의 이름도 보인다. 한편 『자유신문』 기사는 김기림을 필두로 김병욱, 김상훈, 임학수, 이용악, 이병철, 윤곤강, 설정식, 백석, 상민 등의 작품 평이 중심이다. 그밖에 김경린, 홍윤숙, 장만영, 유정의 이름도 보인다.

4) 시로는 「박현영선생이 오시어」, 「대망(待望)의 노래」, 「산 사람들」, 「진주 손님들」, 「아라사 가까운 고향(故郷)」, 「행색(行色)」을 발표했다. 해방기 전체의 작품 목록은 오양호, 2021, 『1940년대 전반기 재만조선인 시 연구』, 역락, 186쪽 주석 7) 참조.

5) 이성혁, 2011, 「1940년대 초반 식민지 만주의 한국 초현실주의 시 연구」, 『우리문학연구』 34호,

성취는 그와 김복원, 신동철, 황민, 강옥이 함께 활동한 동인 『시현실』의 몫이었다. 시인이 독립된 ‘이수형’ 없는 집합 속의 1인으로 늘 등장하며, 분명 문제적인 평론과 산문이 비평적 조망과 해석의 장에서 멀리 비껴나 있는 상황도 어찌면 『시현실』의 강력한 자장, 아니 주술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II. 이수형·만주(국) 시대·글쓰기의 좌표

앞 장의 서술을 토대로, 『시현실』에 포함되되 거기서 벗어나는 독립된 ‘이수형론’을 위해, 또 기존의 해석·평가와 구분될 수 있는 미학적 토대와 이질적 자질을 찾아보기 위해 ‘만주(국) 시대’의 작품을 지상에 먼저 올려둔다.

[표] 만주(국) 시대 이수형의 작품 목록

시	白卵의 水仙花(만선일보, 1940.3.13.), 生活의 市街(만선일보, 1940.8.23., 신동철 합작), 娼婦의 命令의 海洋圖(만선일보, 1940.8.27.), 未明의 노래(만선일보, 1940.11.6.), 風景手術(만선일보, 1941.12.10.), 人間 나르시스(재만조선시인집, 1942.10.10.), 소리(조광, 1942년 9월호), 기쁨(조광, 1943년 3월호), 玉伊의 房(조광, 1943년 10월호)
산문	前衛의 魔笛은 上·下(만선일보, 1940.11.15.~11.16.)
평론	朝鮮詩壇의 裁斷面(만선일보, 1941.2.12.~2.22.[10회])

[표]에 보이는 이수형의 시, 특히 『만선일보』본 텍스트는 『시현실』 동인 연구에서 집중적 조명과 해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제-식민지 조선-만주라는 시공간적 위치, “시간 엮는 시계”(「생활의 시가」)로 표상되는 허구적인 ‘사실의 세기’, 그에 맞서 고착된 모든 것을 비유컨대 “너의 육체(肉體)는 가설(假說)”(「백련의 수선화」)로 돌리는 ‘절대적 반항’ 또는 ‘전적인 불복종’⁶⁾의 기미가 연구자의 호기심과 해석 의지를 돋웠기 때문이다. 그 지적 탐험의 결과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우리문화회, 348쪽.

6)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역, 2012,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132쪽.

방향타로 삼기로 한다.

먼저 『시현실』 동인의 삶과 활동 무대였던 만주 연변의 학자 김호웅이다. 그는 이수형 시가 문맥이 비논리적이고 내포가 복잡하여 난해성 과잉에 빠져들었음을 주목했다. 그 결과 만주 이민 사회 전반의 불안 및 쟁투와 무관한 도시 문명의 잔해들을 시적 소재로 취하며 시정인의 사랑과 죽음, 불안과 절망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비평했다.⁷⁾ 같은 공간의 학자 김장선은 『시현실』 동인의 한계로 자동기술법에 기반한 ‘초현실주의’ 텍스트의 난해성 과 현실 이탈의 특징을 거론했다. 그렇지만 이들의 작품이 도시의 혼란과 형형색색의 이질감을 보여주며 ‘현실부정’의 욕망, 특히 일제의 폭압적 식민 통치에 대한 ‘부정의식’을 적극화한 긍정성을 높이 샀다. 또한 얼마 뒤 『만선일보』의 기획물인 ‘극언(克彦)’의 『시현실』 동인 비판을 자신의 주장과 처음 연동시킴으로써 그들 시에 대한 해석과 논의의 폭을 넓혔다.⁸⁾

2000년대 『시현실』 동인 연구의 첫 장을 연 장인수는 ‘방어 기제’로서의 초현실주의를 『시현실』 동인의 핵심적 자질로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수형의 시에서 ‘허가된 현실’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한 유희와 페티시, 인간관계의 근대적 변화와 소외에 대응하는 분열의 조어(造語), 자기-신체에 대한 애착으로서의 나르시시즘을 읽어냈다. 그는 이런 특성을 생활 현실과 분리된 ‘진공(眞空)’에서의 시 쓰기 및 거울에 얼굴 비추기 같은 자기애적 단계의 ‘초현실주의의 위생학’으로 명제화했다.⁹⁾ 한편 이성혁은 『시현실』 동인의 성취를 만주국(도시) 특유의 초국가주의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입체화하는 ‘분열적 몽타주’로 표현한 것에서 찾았다. 특히 이수형은 조선 이주민의 실상을 ‘창부’로 대표되는 ‘상품으로서의 육체’에 대한 알레고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드러낸 뒤, 그것을 허위적인 근대성 일반과 만주국 이데올로기의 불모성에 대한 폭로와 비판의 방법으로 전유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았다.¹⁰⁾

7) 김호웅, 1997, 『재만 조선인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59-65쪽.

8) 김장선, 2004, 『위만주국시기 조선인문학과 중국인문학의 비교 연구』, 역락, 251-256쪽.

9) 장인수, 2006, 「한국 초현실주의의 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박사논문), 89-100쪽.

조선족 연구자로 보이는 김정정의 연구도 『만선일보』의 열린 공간과 조선 모더니즘 시(『시현실』 동인집)의 길항 관계를 중심으로 이수형 시의 정치성과 저항성을 논했다. 연구자는 『만선일보』는 만주국 산하 ‘만주홍보협회’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오족협화’의 이념 아래 특히 문예물 계재에서 일정한 자유공간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이수형은 이를 잘 활용하여, 도시의 거리(시가)에 구축된 폭력적인 군사 권력에 의해 억압, 통제되는 ‘창부’(=‘성모 마리아의 시장’)의 비애와 소외를 모더니즘 시의 기법으로 그려냈다는 것이다. ‘창부’의 비극은 그녀처럼 ‘가면’을 쓴 채 시와 삶의 ‘진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시인 자신의 그것이기도 하다는 주장이 새롭다.¹¹⁾

최근의 연구로는 조은주와 김진희의 지적 통찰과 정교한 해석이 주목된다. 먼저 조은주는 『시현실』의 시에 내장된 정치성(政治性)을 첫째, 동인 모임의 성격에 주목하되, 둘째,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리(도시)’, ‘전쟁’, ‘나르키소스(나르시스)’ 이미지를 통해 분석했다. 그럼으로써 그것들이 당시의 끔찍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부정적 요소로부터 탈주하여 예술적 세계로 나아가는 ‘초현실’의 주체임을 확인했다.¹²⁾ 또한 김진희는 회화 및 영화적 기법을 통해 이질적 이미지의 조직적 구성과 거기 담긴 정치적 전위성을 살폈다. 그럼으로써 이수형은 파편화된 근대성에 대한 ‘엄격한 지성’, 곧 비판적 성찰을 감행했으며, 일본이 서구를 대체한다는 허구적 ‘자기애’와 ‘신화화’에 빠진 천황 군국주의를 강렬하게 비판했음을 밝혔다.¹³⁾

가장 먼저 『시현실』 동인과 악수를 시도한 오양호의 성과는 따로 기록되어 마땅하다. 그는 앞의 [표]에 제시된 산문과 평론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제외하고,

-
- 10) 이성혁, 2011, 「1940년대 초반 식민지 만주의 한국 초현실주의 시 연구」, 『우리문학연구』 34호, 우리문학회, 351쪽 및 359-364쪽.
 - 11) 金晶晶, 2015, 「『滿鮮日報』と朝鮮語モダニズム詩: 李瑋馨の詩を中心に」, 『九大日文』 25号, 九州大学日本語文学会, 70-80頁.
 - 12) 조은주, 2019, 「만주 모더니즘과 『시현실』 동인」, 『한국민족문화』 70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76-90쪽.
 - 13) 김진희, 「만선일보에 실린 시 『시현실 동인집』과 동인 활동의 문학사적 의의」, 『현대문학의 연구』 6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141-149쪽.(이 글에서 해방기 문학 활동 사항도 처음 알려졌다)

9편의 시 전체를 검토하고 분석한 유일한 연구자다.¹⁴⁾ 이때 그는 『만선일보』의 초현실주의 시와 『조광』의 향토 시로 구별되는 이수형의 시를 대조적 텍스트로 대립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두 시를 일제의 총력전에 맞서 민족의 해방과 시의 자유라는 ‘시적 윤리’를 공유하는 저항시로 상통시켰다. 이 때문에 그가 한 시(‘옥이(玉伊)의 땀’)의 인물을 두고 “옥이는 경성에 잠입한 시인 만주독립군 이수형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견결한 저항적 민족주의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¹⁵⁾ 그의 의견에 대한 동의·부동의와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오양호만큼 1930~40년대 조선의 각종 문예지와 잡지, 만주의 『만선일보』 등을 세밀하게 읽어가며 각종 연관 관계를 엮어갈 수 있도록 작품에 대한 논의와 자신의 주장을 열렬히 펼쳐간 이를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견해를 집약할 때, 이수형의 시적 위상과 미적 특징, 정치적·이념적 감각(감성)은 이렇게 정리된다. 첫째, 이수형은 김복원과 더불어 동인 『시현실』의 실질적 리더였다. 특히 “전위예술론가설(前衛藝術論假說)의 설정(設定)”(「백판의 수선화」)이라는 대목을 볼 때 동인이 추구하는 초현실주의 미학의 실질적 설계자였다. 둘째, 초현실주의의 선배 세대로서 『삼사문학』, 특히 ‘절연하는 논리’를 앞세워 ‘현실의 산문화를 통한 초현실’로의 도약을 욕망했던 이시우의 방법적 실험에 대해 확실한 차별화에 성공했다. 요컨대 선배들이 형식 실험의 자유에 더욱 투신했다면, 이수형은 그것을 파편화된 도시적 일상에 접속하여 파시즘 득세의 ‘사실의 세기’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저항을 수행했다.

두 상황과 관련되는 이수형의 예술-정치성은 물론 그의 이념적 토대로서 혁명적 계급-민족해방에 대한 욕망과 긴밀히 연관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가 맹렬히 사숙했을 앙드레 브르통의 말(『연통관들』)처럼, 근본적 세계 개혁과 완전한 세계 해석에의 욕망¹⁶⁾에서 기원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아마도 ‘초현실’에 대한

14) 오양호, 2021, 『1940년대 전반기 재만조선인 시 연구』, 역락, 145-149쪽 및 210-260쪽 참조.

15) 오양호, 2021, 위의 책, 211-263쪽. 그의 이수형과 『시현실』 동인에 대한 논의의 첫 작업은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연구』(문예출판사, 1995)였다. 여기서는 주로 저항 의식이나 민족주의적 정서보다는 ‘초현실주의’ 성향에 초점을 맞춰 『시현실』 동인의 시에 나타난 자동기술, 파편적 이미지, 초현실적 오브제 등의 가치와 의미를 주로 다뤘다.

동류의식으로 매일 귀 기울였을 법한 재만 일본예술가들의 활동 무대 ‘아방가르드예술클럽’의 명제와도 접촉점을 형성하는 듯하다. 이른바 ‘분노의 아방가르드’가 그것이다. 이 신조어는 만주국의 절대 이념 ‘왕도낙토’와 ‘오족협화’의 허구성과 폭력성에 순응하거나 악수함으로써 “시의 언어가 ‘에스프리’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는 결정적 퇴폐와 파탄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뜻하는 말이다.¹⁷⁾ 일종의 가상이자 꿈의 공간으로서 ‘초현실’은 시가 전체주의적 사회와 국가의 나팔수나 어릿광대로 타락하는 위험을 건너게 하는 미적 윤리나 혁명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은 그래서 가능해진다. 실제로 당시 재만 일본 초현실주의자들은 비현실적 주제나 초현실적 상황을 선택하고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허구성과 폭력성을 나날이 더해가던 만주국의 현실을 예리하게 짚어냈다.¹⁸⁾ 이런 성향은 이수형과 『시현실』의 미학적 방법이자 지향점이기도 했다.

이수형의 “근대의 시장”(『백판의 수선화』) 밖으로 탈출하려는 욕망과 “현실에 규약된 성실”(『창부의 명령적 해양도』)을 위반하려는 의지는 “엄숙한 지성”(『백판의 수선화』)에 밀받침되어 마땅한 ‘분노의 아방가르드’의 일종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수형은 재만 조선인들의 비참한 생활 자체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비친 만주(滿州)의 ‘끔찍한 모더니티’를 분열적·파편적으로 콜라주하는 방법으로 ‘초현실’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제성과 민족성을 재량껏 발현했다는 추론도 얼마간 자연스러워진다.

하지만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수형은 아직도 답하고 해결해야 할 여러 물음표를 거느리고 있다. 어떤 것은 『시현실』 동인과 관련되며 또 어떤 것은 시인 개인에 대한 의문점과 연결된다. 첫째, 이수형을 비롯한 『시현실』 동인과 『만선일보』의 관계이다. 안수길은 당시 신의주의 김우철을 비롯하여 『시현실』의 모체가 된 청진의 슈르리얼리스트 『맥(獮)』 동인들이 『만선일보』에 소포로 원고를 보내왔다고, 1970년 무렵 회상한 적이 있다.¹⁹⁾ 그러나 신문은 무엇보다 독자 대

16) 오성근, 2010, 『초현실주의 시와 문학의 혁명』, 문학과지성사, 37쪽.

17) 니시하라 마사히로(西村將洋), 2010, 「『만주문학』에서 아방가르드로: 재만주 일본인과 언어표현」, 가미야 다다타카(神谷忠孝) 외, 김계자 외 역, 『〈식민지〉 일본어문학론』, 도서출판 문, 181쪽.

18) 최재혁, 2009, 「1930·40년대 일본회화의 만주국 표상」, 『미술사논단』 28호, 한국미술연구소, 127쪽.

중에 대한 집단적 교훈 설파와 계몽 제고, 서로 다른 재미와 취미(취향)의 제공 및 계발을 목적한다. 더군다나 『만선일보』는 저 목표들을 만주국 국책사업을 선전하기 위한 체제 협력의 문자와 이미지로 능숙하게 전환할 줄 아는 보도 매체였다.

그러므로 『만선일보』가 의미의 난해성과 파편화된 이미지로 가득한 『맥(緘)』이나 『시현실』 동인을 팔 벌려 환영했다고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다. 당시의 녹록잖은 시대와 매체 현실은 어쩌면 『만선일보』가 작품 발표 요청과 텍스트 선택을 주도했는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게 한다. 이 문제는 이수형과 김복원을 비롯한 『시현실』 동인이 『만선일보』에서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 우울한 상황과도 깊이 연관될 듯하다.

둘째, 그간 분석된 작품의 분포와 그 편향성의 문제가 어떻게든 해소되어야 한다. 오양호의 연구를 제외하면, 앞선 성과들에서 이수형 시는 「생활의 시가」-「창부의 명령적 해양도」(5회), 「백란의 수선화」(3회), 「인간 나르시스」(1회) 단 4편만 주목을 받았다. 문제적 시편 「풍경수술」과, 마치 ‘초현실주의’와 보란 듯 결별했다는 내면 의지를 일부러 노출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안기는 ‘향토시’풍의 『조광』 수록작 3편에 대한 문제화와 의미화도 시급을 다룬다.

셋째, 놀랍게도 현재까지 이수형의 산문과 평론 읽기 및 그것의 객관적 의미화는 거의 텅 빈 공백으로 남아 있다. 특히 유일한 평론 「조선시단의 재단면」은 이수형의 초현실주의 시에 대한 앎과 그것의 현장화, 당시 조선시단의 초현실주의 관련 시(인)에 대한 가치판단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우리는 그 현장을 탐색함으로써 당대 문단의 이면과 시인들의 어떤 관계들을 엿보는 행운(?)을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에 앞서 그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론적 감각이 실제의 시 텍스트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당연히 살피게 될 것이다.

넷째, 이상의 문제들은 이수형 시의 확장과 심화, 또는 정반대로 축소와 후퇴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와 거점이 되어 줄 것이다. 그 방향을 미리 그려보건대, 이수형의 시는 ‘초현실주의’에서 ‘향토풍’으로, 다시 해방기 선전·선동 시와 발간 예고

19) 안수길, 1999, 「용정·신경 시대」,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서』, 깊은샘, 265쪽.

의 『산맥』으로, 마지막에는 월북 후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하는 혁명시로 나아갔다. 이 흐름과 깊이 관련된 시와 이념의 변화 또는 전유의 전초 기지가 이수형의 ‘만주(滿)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게 이후 논의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Ⅲ. ‘동인’이란 제도·만선일보·조선(인) 문학·미의 윤리

『만선일보』에 이수형 주도의 『시현실』 동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언제일까. 시가 먼저 실렸을 듯하지만, 뜻밖에도 그들의 동인지 출간 소식이 가장 앞섰다. 이 글이 발굴하여 처음 대중 앞에 선보이는 것이니만큼 기사를 원문대로 인용하되 띄어쓰기만 현대어법을 준용한다. 국내 『조선일보』에 기사화된 동일한 사건은 오양호의 손때를 입었는데, 함께 비교해 보면 그 감회와 의미가 더욱 새로울 듯하다.

滿洲 最初の 詩同人誌 『典型』 十二月末 도문서 發刊 豫定

朝鮮文壇과 詩 文人에 對한 希望과 許多한 不滿을 품고 滿洲國에서 最初の 同人誌가 發刊된다는 明朗한 뉴스! 圖們街 仲秋區 仲秋路 五牌 二號 平一軒 內에 編輯所를 두고 李琇馨 申東喆氏 等이 發起人이 되어 지금 盡力中인바 誌名은 『典型』이라 하며 發行 豫定日은 康德六年 十二月末이라고 한다.

—『만선일보』 1939년 12월 4일자, ‘가정 문예’ 4면.

同人詩誌 『典型』 發刊

間島 圖們에 있는 李琇馨, 申東喆씨 等 數人의 손으로 이번에 詩同人誌 『典型』을 發刊하기로 되었다 한다. 滿洲國 內에서는 드문 計畫이므로 一般의 期待가 크다고 한다.

—「學藝안테나」, 『조선일보』 1939년 12월 8일자(석간) 3면.

두 기사를 비교할 때, 『조선일보』(8일, 금요일)가 『만선일보』(4일, 월요일)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에는 『전형』 출간 관련 사실과 정보만 간단한 실려 있다. 이

에 반해 『만선일보』에는 “조선문단과 및 문인에 대한 희망과 허다한 불만을 품고”라는 동인지 발간의 이유, 편집소인 이수형의 집 또는 사무실 주소²⁰⁾, 발간 예정일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만선일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첫째, 발기인 이수형과 신동철, 둘째, 동인지 발간의 이유일 수밖에 없다. 두 항목을 중심으로 이후 1940년 『만선일보』에서 『맥』과 『시현실』 동인들의 단독 시 게재와 특집 편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수형의 「백란의 수선화」(3.13.), 김복원의 「태동(胎動)」(4.16.),²¹⁾ 이수형과 신동철의 「합작(合作) 「생활의 시가」를 첫 텍스트로 취한 『시현실』 동인지」 특집(8.23.~28. 6회),²²⁾ 그리고 뜻밖에도 10월 하순에 『「전형」에서』라는 원고 출처를 밝힌 함형수(2편), 백삼(2편), 이달근(1편), 조학래(1편)의 시가, 11월에는 이수형(1편), 이달근(2편)의 시가 집중적으로 실렸다.²³⁾

그런데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왜 뒤늦게 동인지 『전형』의 시들이 실리는가 하는 문제다. 이수형의 「미명(未明)의 노래」를 제외하곤 해당 시편 모두가 “『전형 시집』에서”²⁴⁾라는 꼬리말을 달고 있다. 유일하게 이수형만 “1940.10.25. 『典型』

- 20) 작품 말미에 “於 圖門 平一軒”이라는 시인의 소재지가 적혀 있다. 당시 『만선일보』 정치·경제부장인 홍양명은 한 기획 기사에서 이수형이 예전에는 도문역에, 현재는 간도무역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때 함형수, 김귀와 사귀기 시작했으며, 도문 선계(鮮系) 주민의 이데올로기가 “민족협화적이기보단도 다분히 함경북도적”이라고 적었다.(홍양명, 「도문(圖門), 연길(延吉)의 인상(印象): 합시동만간도별견기[哈市東滿間島瞥見記] (6)』, 『만선일보』 1940년 7월 20일자)
- 21) 김복원은 「태동」을 발표하면서 “이수형형(李瑒馨兄) 답시(答詩)”라는 꼬리표를 달으로써 한 달여 앞서 발표된 이수형의 「백란의 수선화」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했다.
- 22) 이수형·신동철, 「생활의 시가」(23일), 「의자」(24일), 강욱, 「악보를 가졌다」(25일), 이수형, 「창부의 명령적 해양도」(27일), 김복원, 「비둘기 날으다」(28일), 신동철, 「능금과 비행기」(29일). 보낸 곳은 도문, 청진 등, 작성일은 봄, 7월 20일, 8월 10일, 20일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황민은 『시현실』 동인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늦게지만 장문의 산문시 「금역(禁域)의 수첩(手帖)」을 『만선일보』 1940년 9월 3일~5일자에 나눠 실었다. 작품 말미에 “필자 『시현실』 동인지」임을 밝혔다.
- 23) 수록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총 9편으로, 함형수, 「나의 신(神)은」(10.21.), 백삼(白森), 「피에로의 노래」(10.22.), 이달근, 「실혼(失魂)의 노래」(10.23.), 함형수, 「개아미와 가치」(10.24.), 백삼, 「첫 향연(饗宴)」(10.25.), 조학래, 「심문(心紋)」(10.29.), 이달근, 「비 나리는 밤」(11.1.), 이수형, 「미명(未明)의 노래」(11.6.), 이달근, 「비 개인 포도(鋪道)」(11.7.)이다.
- 24) 오양호는 이를 근거로 실전(失傳) 상황인 『典型』의 실제 제목이 『典型詩集』일 것으로 추정했다.(오양호, 『1940년대 전반기 재만조선인 시 연구』, 131쪽. 『만선일보』 수록 작품명도 이곳 참조) 그러

에 들이는(넣는 또는 드리는: 인용자) 노래 於 圖們²⁵⁾을 달았다. 오양호는 이를 근거로 『전형』의 실질적 출간이 1940년 10월 도문에서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일견 타당한 통찰로 보인다. 그러나 이수형 빼고 모두가 “『전형시집』에서”를 꼬리말로 달았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전형』에서 다섯 시인의 텍스트 9편을 ‘잘 빚어진 시’로 골라 『만선일보』에 건넸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유독 다른 꼬리표를 단 이수형일 수도 있고, 당시 『만선일보』를 사직한 상태였지만 민족협회에 근무하며 종종 원고를 보냈던 전(前) 학예부장 ‘여수 박팔양(창씨명 水原一夫)’일 수도 있다.

나는 예정대로 1939년 12월 출간을 마친 『전형』 소재 시편에 대한 선택권이 일정한 조건을 내건 『만선일보』의 제안에 따라 이수형에게 주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왜 그런가. 이수형의 『만선일보』 최종작은 「풍경수술」(1941.12.10.)이었는데, 그 사이 「조선시단의 재단면」(1941.2.12.~2.22.)이 실렸다. 그는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이상 동인지 『시현실』에 의거하고 잇는 나로씨의 시관(詩觀)과 시단관(詩壇觀)이다”라고 맺었다. ‘초현실주의’에 대한 앎을 밝히고 만주 아닌 ‘조선시단’에서 그것의 현황을 검토했으므로 이수형 개인의 견해일 듯싶지만, “『시현실』에 의거” 운운을 보면 그 동인의 집단적 소견으로 보아 무방하다.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전형』 발행 목적인 새로운 문학 지평에 대한 희망을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견해 표방과 무관하게 이후 『시현실』 동인들은, 이수형의 「풍경수술」과 김복원의 「젊은 개척사(開拓士)여」(1942.1.20.)를 끝으로 『만선일보』의 지면에서 서둘러 사라져갔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것은 『시현실』의 실질적 두 축인 이수형과 김복원의 소작 「풍경수술」과 「젊은 개척사여」는 불과 한 달여 시차를 두고 발표되지만 매우 대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수형은 여전히 ‘초현실’의 가능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반해 체제 협력의 언어로 돌아선 김복원은 ‘초현실’의 지향이 초국가주의적인 권력체제에 의해 파국을 맞았을 때 주어질 패배와 처벌, 굴종과 전향의 비극적 사태²⁵⁾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나 『만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사, 「미명의 노래」에 “『典型』에 들이는 노래”라는 꼬리표를 붙인 이수형을 볼 때 『典型』이 옳아 보인다.

실제로 『만선일보』는 1940년 11월 중순 신춘문에 현상모집의 대주제를 “문화 건설의 전초선(前哨線)”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때의 ‘문화건설’은 잠시 뒤 살펴볼 2~3회의 지면 개편을 거치면서 그 내용과 이념, 목표에서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 결과 1942년 1월 23일~2월 7일 사이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라는 작가 특집을 마련하여 젊은 시인과 소설가 9명의 ‘태평양전쟁’을 맞는 각오와 ‘전선(前線)’을 보위하는 ‘총후(銃後)’ 실천의 다짐을 신기에 이른다.²⁶⁾ 이 특집의 성과가 여러 문인의 시각을 통해 만주 조선 문화계가 내부 담론을 넘어서 영미와의 대결 구도, 곧 ‘대동아전쟁’에 선언한 ‘총력전’의 승리 담보를 위한 문학과 예술, 문화 건설로 전환된 것에 있다는 한 연구자의 시각은 여러모로 시사적이다.²⁷⁾ 만주 조선작가의 글과 삶이 나아갈 길은 오로지 “지성의 논리는 종속을 허용치 않고 그리고 지성인에게는 오직 전쟁이 있을 뿐”²⁸⁾이라는 ‘귀축영미(鬼畜英米)’ 타도의 ‘총력전’ 담론으로 징집되는 참담한 운명만이 남아 있었다.

예의 이수형 및 『시현실』 동인 관련 흐름은 동인지 『전형』 발간의 단초가 된 “조선문단과 및 문인에 대한 희망과 허다한 불만”의 외연과 내포 변화 및 그에 대한 이해에 효과적인 토대가 된다. 물론 『시현실』 동인의 그것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선과 만주 작가가 느꼈을 법한 “허다한 불만”을 『만선일보』 기획에서 찾아본다면 ‘설문 「만주 조선문학을 말함」’(1940.1.26~2.2., 총 6회)이 가장 주목된다. 설문은 세 꼭지로, 첫째, 만주 조선(인) 작품 독서 여부, 둘째, 만주 작품 창작 시 관심(취재) 방면, 셋째, 장래 만주 조선문단에 대한 희망을 이기영, 박영희, 채만식,

25) 「젊은 개척사여」에서는 “머리우헤 하늘은 높다말알애 大陸이 든든하다”, “지낸날은 한바탕 어선한 白日夢새로운 전설에 뿌리내리는오늘은 다 못나아가는 時間”, “우리 발알래 대륙은 넓어우리의 에너지 無限에로 쫓는다” 등의 시구가 보인다. 김복원의 『맥』과 『시현실』, 『만선일보』 활동에 대해서는 김진희, 2019, 「김복원(金北原)의 문학사적 복원과 해방기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142-150쪽이 유익하다. 단 「젊은 개척사여」 발표일(149쪽)은 1월 21일이 아닌 1월 20일로 수정되어야 한다.

26) 천청송, 김귀, 남승경, 송철리, 안수길, 조학래, 김창걸로 대표되는 『만선일보』 출신 작가-기자와 식민지 조선에서 건너온 김복원, 유치환이 특집 기획을 감당할 만한 발 빠른 주자로 징발당했다.

27) SHI CE, 2024, 「만주 조선인 문학 장의 형성과 전개: 『만선일보』 문학 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원(박사논문), 142쪽.

28) 國本宗秀, 「滿洲文化人の 課題」, 『만선일보』 1942년 3월 16일자.

유진오 등 9명의 문인에게 물었다.²⁹⁾ 이들의 답변은 거의 대동소이하여, 이를테면 이기영은 만주문학에 대한 독서 경험 거의 없음, 농촌을 소재로 한 농민소설, 개척민을 주인공으로 한 '대지문학'의 가능성 타진을, 채만식은 가끔의 『만선일보』 구독 경험, 재만 조선인의 생활상과 사회성 취재, '조선'적인 만주성(滿洲性)을 가진 작품의 출현을 제시했다. 이후 만주문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몇 다양한 영역이 제시되었지만, 만주 조선문학에 대한 무관심과 농촌문학 중심의 협소한 영역 설정은 『만선일보』 작가와 독자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만선일보』는 위의 기획과 함께 젊은 재만 문인을 대상으로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제창)'(1940년 1월 12일~2월 6일, 총 21회)³⁰⁾를 연재 중이었다. 젊은 문인들이 필자였던 만큼, '신제의(제창)'의 핵심은 '만주 조선(인) 문학 장'의 정체성 확보와 그 창작 환경 환경을 이끌어 갈 능력 있는 창작자, 곧 '중심적 존재'의 발굴과 성장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는 '우리 양심을 의지할 어떤 과도기적인 형태의 동인지'라도 갖게 된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으며 이에 대한 많은 성원 바란다는 '수석(燧石)'의 말³¹⁾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이상의 두 항목은 "조선문단과 및 문인에 대한 희망"을 '만주 조선(인) 문학'의 그것으로 대체하고 재만 조선 작가와 작품 독립성을 고취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그러던 차에 1940년 8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폐간은 '만주 조선 문학'을 넘어 '반도 조선문학'의 생존과 유지에 관련된 『만선일보』의 필요성과 발전성 요구를 더욱 확증하는 일대 사건으로 작동했다.³²⁾ 왜냐하면 두 신문의 폐간 일성인

29) 안석영, 최정희, 이찬, 방인근, 노자영도 설문에 응답했다.

30) 황건, 윤도현, 김귀, 박영준, 김춘강, 이광현, 현경준, 신서야, 안수길, 송지영이 2~3차례 집필했다. '신제의(제창)'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SHI CE, 「만주 조선인 문학 장의 형성과 전개: 『만선일보』 문학 담론을 중심으로」의 'II. 문학 장 의식의 출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초기 모색' 참조.

31) 燧石, 「同人誌」, 『만선일보』 1940년 4월 24일자.

32) 두 일간지 폐간이 재만 조선 언론계와 문단에 크나큰 충격파였음은 『만선일보』 1940년 8월 13일자 3단 기사 "동아, 조선 양지 10일로써 폐간"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이 조치가 '조선총독부 언론기관 통제 의결'에 대한 양해의 성립에 따른 자진 폐간이었으며, 그에 따라 "반도내의 언론지는 매일신보 하나"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는 국외지만 『매일신보』보다 보도나 민족어 사용에서 훨씬 자유로운 『만선일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진다.

“동아 신질서 건설의 위업을 성취하는 데 만일(萬一)이라도 협력하고자 속아분려 [夙夜奮勵]”(『조선일보』 1940년 8월 11일자)한 결과라는 말은 언어와 일상, 문화 전반의 ‘조선적인 것’의 억압과 통제, 금지와 말살³³⁾을 공공연하게 감춘 공격과 파괴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선일보』 문예 장은 한반도와 만주 각지 작가들의 상호 연락과 소통의 무대인 동시에 ‘만주 조선인 문학의 재건’을 위한 작품 발표의 전초 기지로 자신의 위상과 책무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이라도 그들은 만주 조선(인) 문학이 ‘북향의식’에 근거하여 수립, 확장되어야 하며, 결코 조선의 변방이나 지방성의 영역으로 축소되거나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와 기회의 감각을 함께 내면화해야 했다.³⁴⁾ 이 상황에 맞게 때마침 『만선일보』는 1940년 6월 개편의 경우, 조석간(朝夕刊)지에서 일간지로의 변화, 학예면 공간의 독립과 확장, 8월 개편의 경우, ‘국어란’, 곧 일본어 칼럼란과 일본어 문예물 게재가 시행되었다. 서로 대조적인 듯한 6월과 8월 지면 개편은 조선어와 일본어 습득 및 이해 능력을 확연히 늘림으로써, 첫째, 문예물 감상과 심미적 정서의 심화, 둘째, 더욱 근본적으로는 “선계 국민을 위한 국가정신”의 함양, “모든 내외정세” 및 “생활 각 부문”의 총의에 대한 이해와 수렴, 셋째, 만주국 이상과 시책의 적극적 수렴과 실천, 보도, 반영된 국민 생활의 충실한 이해 등³⁵⁾을 확장, 심화하고자 했다.

이 내외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1940년 8월 23일~28일 총 5회 게재된 『시현실』 동인집은 첫째 요건에 해당하는 ‘만주 조선(인) 문학’의 실제와 가능성으로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만주국 이상과 시책’ 운운이 암시하듯이, 이미 발차 중이었던 개인 문학의 통제와 국책문학의 양양을 지시하는 만주

33) 안수길은 점차 억압과 탄압이 가중되던 조선문학의 현실을 피해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 있던 『만선일보』 중심의 ‘글쓰기 장’을 향해 조선과 만주에서 물려든 문인들, 시 장르를 예로 들면 박팔양, 백석, 함형수, 유치환, 현경준, 김조규 등의 지리적·문화적 월경을 ‘망명문단의 형성’과 연동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안수길, 「용정·신경 시대」,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서』, 264-265쪽 참조.

34) 김재용, 2012,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본 ‘만주국’ 조선인 문학」, 『문명의 충격과 근대 동아시아의 전환』, 도서출판 경진, 274-275쪽.

35) 편집부, 「본보 사명의 재인식」, 『만선일보』 1940년 6월 1일자 및 「본보 사명의 재인식」, 『만선일보』 1940년 8월 25일자.

국의 「예문지도요강」(1941.3.)의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조건 아래 놓여 있었다. 결국 『시현실』 동인의 운명이 후자쪽으로 기울었음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충실히 확인된다.

하나, 아직 본명이 확인되지 않은 ‘극언(克彦)’의 긍정적 인정이 거의 없다시피 한 부정적 비평이다. 『시현실』 동인은 서구의 모더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이념으로 볼 때 실로 불행스리 병든 시인들”이며, 창의성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세관의 눈을 속이는 문화적 밀수입자의 공인(工人)이 되고 말 위험성”³⁶⁾을 벗어나기 어렵다. 초점이 ‘초현실주의’의 역사적·미학적 한계에 맞춰져 있지만 ‘극언’을 ‘국책문학’의 동조자로 보는 입장에 선다면, 사회성과 이념성 짙은 『시현실』 동인집은 다음과 같은 의심과 판정을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예술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초현실주의’에 들쭉뒤집힌 프레임, 곧 총력전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사상적 ‘위험성’이 농후한 경향으로 의심되어 “예술적 전위”는커녕 “정치적 전위”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해진다는 사실 말이다.³⁷⁾ 만주국의 이상화와 국책의 선양에 목적을 둔 『만선일보』 지면 개편의 이면에 사회주의 관련 사상성 통제와 저항성의 배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의 추정은 결코 과장된 것일 수 없다.

둘, 1940년 8월 발표된 『시현실』 동인집의 성과와 유효성은 거의 해프닝에 가까운 일회적 사건으로 정리되며, 새로운 ‘만주 조선 시’의 자리를 이미 출간된 『전형』 소재의 텍스트와 시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다. 10월~11월 재수록된 『전형』 시편은 여전히 자연친화적 서정이나 생활의 미학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시현실』 동인집의 때로는 난해하고 때로는 기괴한 분열적 언어와 착란의 이미지와 비교적 무관한 모습이다. 가령 이수형의 「미명의 노래」 4연에는 “거미줄 같은 지상엔 태양을 쏘이든수많은 욕망과 암담한 애욕이아름다운 시간 위로곤충처럼 사라지고파문처럼 사라지고”라는 대목이 보인다. 여전히 “수많은

36) 차례로 극언, 「〈시현실〉 동인집평 (2): 과도기의 혼란」, 『만선일보』 1940년 9월 1일자 및 「〈시현실〉 동인집평 (완): 치열(熾烈)한 정신의 연소」, 『만선일보』 1940년 9월 5일자.

37) 나미가타 츠요시(波瀾剛), 최호영 외 역, 2013, 『월경의 아방가르드』, 서울대출판원, 101-104쪽.

욕망”, “암담한 애욕”, “해골”, “망각의 지도” 같은 죽음 충동의 이미지가 흩어져 있으나, “아름다운 시간”, “꽃”, “영원” 등 생명성의 언어가 그것을 포획하여 명랑성의 분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국책’의 찬양과 선전이 아니라면 퇴폐적·저항적 의식의 노골적 표현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는 『만선일보』의 입장을 이수형이 어느 정도 수용한 장면이 엿보인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수형식 ‘초현실’의 절정을 보여주는 「풍경수술」이 아직 발표되기 이전임을 동시에 고려하면, 이때의 『전형』 수록작 9편은 “조선문단과 및 문인에 대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발신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허다한 불만”을 내심 떠올리며 『만선일보』 문예 정책 관련 문제의 소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누구나 어렵잖게 입을 만한 시들을 선택하여 말 그대로 ‘소개’의 절차를 밟아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셋, 『만선일보』 학예면은 1940년 12월 『초원동인시집(草原同人詩集)』(15일~25일, 총 6회) 특집을 마련한다. 이름도 비교적 생소한 마명(「밤」, 15일), 남승경(17일), 이해문(「태양의 구도」, 18일), 임백호(「병하」, 19일), 장만영(「이별」, 22일), 강홍운(25일)이 1편씩 발표했다. 이들의 시에는 굳이 사회현실의 암면(暗面)을 떠올릴 필요 없는 소소한 상실과 슬픔의 서정이 빼곡할 따름이다. 이를테면 그나마 재만 조선인의 궁핍한 일상과 연결될 법한 「탐광(探鑛)」(남승경)은 “우리는 날카로운 쥬피타-가 되어새롭고 하얗은 물이 술렁이는 머-니바다로 나가자”라는 추상적 욕구의 드러냄에, 또 「역명판(驛名板)」(강홍운)³⁸은 “오늘도 섯고 내일도 서있거라황혼의 무개차에 내 운명을 신노니남어지 푸념은 후일 다시 만나하자”라는 무기력한 서정의 토로에 그치고 있다. 이 시들에서 『만선일보』가 목표했던 ‘국가정신’과 ‘내외정세’의 파지와 표현은 고사하고, 그 어디에서 재만 조선인 “생활의 각 부면”을 마주칠 것이며, 또 예외적 조선어의 발명과 구성을 맞볼 것인가.

38) 오양호는 『만선일보』 자료의 불량한 상태 때문인지 ‘康鴻運(강홍운)을 ‘廉鴻變(염홍섭)’으로 잘못 읽었다. 함께 소개된 이해문(李海文)이 「康鴻運詩集 “路傍草”를 읽고」(『매일신보』 1941년 4월 5일 자)라는 서평을 썼다. 거기에 “『驛名板』, 「에레나·어서 오너라」 등의 시 중에서 느낄 수 있는 저자의 상당히 난숙(爛熟)한 수법은 미래를 기대함에 족할 것이요”라는 대목이 보인다.

만약 『시현실』 동인집을 부인하거나 저격할 목적으로 이른바 ‘순수시’ 지향의 『초원동인시집』³⁹⁾을 선택, 배치했다면, ‘만주 조선 시’의 추구하고 건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착란된 병적 광조(狂躁)”⁴⁰⁾를 더욱 깊게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남석(南石)’, 곧 안수길은 당시 조선내 시인들이 『만선일보』에 동인시집의 작품을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며, 만주 조선(인) 문학의 ‘문학적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작가가 “현지에 살고 있으며 이곳의 문학 건설을 위한 의욕과 정열을 갖고 있는 이곳 문학인의 손에서 비져진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함으로써⁴¹⁾ 그런 오해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몰아닥칠 「예문지도요강」의 파고는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조선 이주민의 삶과 정신을 입체적으로 새기려던 ‘만주 조선(인) 문학’의 미래를 ‘국책문학’의 쇠우리에 가뒤퍼로써 그 현장성과 팝진성을 제약, 아니 박탈하고 말았다. 그 결과 『초원동인시집』류의 만주 생활 없는 애상적 서정은 『만선일보』의 지면에 다시 복귀할 길을 다시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 ‘초현실’의 추구에 맹렬했던 김복원은 만주국 찬양의 ‘개척사’ 노래로, 이수형은 ‘초현실’의 나르시시즘(「풍경수술」, 「인간 나르시스」)에서 향토풍 서정과 귀향 의식의 고백(『조광』 3편)으로 방향 전환하는 난맥의 시적 행로로 빠져들게 되어 더욱 문제적이었다.

-
- 39) 다음은 온라인 『국어국문학자료사전』(네이버 지식백과[terms.naver.com.])에 보이는 동인지 『초원』(『초원동인시집』)에 대한 정보이다. “1939년 9월 5일에 창간된 시 동인지(詩同人誌). 국판. 68면 내외. 편집 겸 발행인은 이종민(李宗敏), 발행소는 대륙공론사(大陸公論社)다. 창간호로 종간되었다. 원산(元山)을 중심으로 젊은 시인들이 순수시(純粹詩)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낸 동인지였다.” 그러나 오양호는 『초원』 2호(1939.12.) 발간을 확인했으며, 여기 실린 함형수의 「서정주라는 청년을 소개한 바 있다. (오양호, 『1940년대 전반기 재만조선인 시 연구』, 656쪽)
- 40) 다다이즘 시학을 비판한 말인데, 극언(克彦)은 그들의 시를 두고 “모든 이해와 의미를 초월하여 단순한 운동형태로 환원되었다”(극언, 「〈시현실〉 동인집평 (1): ‘초현실’의 시세계, 『만선일보』 1940년 8월 31일자)라고 비판했다. 『초원동인시집』도 어떤 실험과 초월의 의욕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세계를 새롭게 깊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 및 영혼의 운동과 거의 무관하다.
- 41) 南石, 「展望臺: 同人詩와 現地詩人」, 『만선일보』 1940년 12월 19일자. 1940년 『만선일보』에 발표된 동인시(집)는 『시현실』, 『전형』, 『초원』이었다. 『맥』과 연관된 전자 둘은 청진과 성진, 도문과 연길 등을 생활과 시의 현장으로 삼았다면, 후자는 원산 중심의 조선 내부에서 순수 서정을 시의 목표로 추구했다. 이를 통해 안수길이 당시 『만선일보』에 연재 중이던 『초원동인시집』을 비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나르시스의 ‘가설’ 공간, 성모-창부의 ‘시가’와 옥이의 ‘방’

1940년 만주(국) 시대를 전후한 만주 조선(인) 문학의 ‘희망’과 ‘불만’을 『만선일보』의 지형도와 새로 편성된 선발대 이수형-『시현실』-『전형』의 풍경을 중심으로 그 지리지를 그려온 셈이다. 이제 이수형이 ‘만주(국) 시대’를 관통해 간 시들을 읽어보며 그간 건설하고자 했던 ‘초현실’ 세계의 빛과 그림자를 읽어볼 차례가 되었다. 다만 「미명의 노래」는 앞선 『『전형』』 논의로 대체한다. ‘만주(국) 시대’의 문제작 전체, 곧 「백란의 수선화」에서 「옥이의 방」까지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법을 찾아본다는 뜻에서 시적 주체(화자) 및 대상 인물로서의 ‘나르시스’와 그가 지나거나 머무는 공간에 붉은 선을 그려 넣기로 한다. 저 「백란의 수선화」, 「생활의 시가」, 「창부의 명령적 항해도」는 그간 연구의 손길을 많이 거쳤으므로 시어와 이미지의 핵심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지면을 아끼기로 한다.

이수형의 ‘초현실’ 세계를 엿보기 위해 ‘거리 산보자형 나르시스’라는 나름의 용어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미 ‘나르시스’와 그의 변신인 ‘수선화’가 텍스트의 핵심체로 등장하고 있거니와, 그들의 위치가 모두 도시의 거리, 곧 ‘시가(市街)’이기 때문이다. ‘신화’에 따르면, 자기에에 골몰하는 ‘나르시스(나르키소스)’는 ‘육(肉)의 성품(fleshly nature)에 취해 잠들거나 깨어나지 못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⁴²⁾ 이 ‘지성 없는 육신’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에 대한 욕망 부재의 존재이므로 미와 추, 진짜와 가짜, 선과 악에 대한 터무니없는 구별에 빠져 있거나 아예 그럴 의욕도 없다.⁴³⁾ 저 무의미한 가짜의 ‘초현실’을 넘어 ‘절대적 반항’과 ‘전적인 불복종’이 창조하는 진정한 ‘초현실’에 진입하려면 근대도시의 거리(市街)에 던져져, 그곳을 천천히 따라 걸으면서 마침내는 그곳이 ‘소외되고 물화(物化)되고 죽어 있는 세계’⁴⁴⁾임을 먼저 자각해야 한다. 이 전제가 있어야 ‘산보자’로서 ‘나르시스’는

42) Manly P. Hall, 1928, “The Ancient Mysteries and Secret Societies”, *The Secret Teachings of All Ages*, p.29.(<https://sacred-texts.com/eso/sta/sta06.htm>)

43)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역, 2012,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130쪽.

44) 수잔 모스,김정아 역, 2004,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211쪽. 이곳을 대표하는 세계가 보들레르가 걸었던 1850년대 즈음 파리의 파사주(아케이드)이다.

주체의 내면세계와 외부 현실을 동시에 타자화하여 날카롭게 조망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초현실'을 구축하는 뜻밖의 사유와 상상, 그리고 진정한 미의 세계로 진입하는 좁은 틈새를 그때서야 찾게 된다.⁴⁵⁾

첫 작품 「백란의 수선화」(1940.3.13.)가, 하나, 살바도르 달리의 『나르키소스의 변신』(1937)과 연관되며, 둘, '공업 일본, 농업 만주'에 표상된 식민지 근대화, 다시 말해 제국의 자본과 병정의 총칼이 그곳 일상과 문화를 왜곡, 굴절시키는 '죽음의 유곡(幽谷)'을 비판적으로 통찰하는 텍스트라는 해석은 선행 연구 공통의 소견이다. 이 시에서 오브젝트들의 연관성과 논리성을 체계적으로 연결 짓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화자나 대상 인물, 곧 '나르시스'가 바라보는 1940년 2월 만주 어딘가의 도시 풍경(도문, 신경, 봉천, 하르빈 어디라도 좋다)과 그 느낌 몇몇에 유의한다.

'뉴스 필름'처럼 빠른 '근대', 센티멘탈하고 주지적인 '수선화', '창고의 누태(陋態)한 경면(鏡面) 속 미소년', "화석의 백란", "근대의 시장", "순백한 처녀의 육체", "순백한 SIX FINGER", "너의 육체는 가설". 이 모든 대상과 이미지를 폐허화 또는 가치화하는 최후의 정신과 언어는 "전위예술론가설"이다. 상황은 명백해서, '왕도 낙토'와 '복지만리'의 구호가 드높았던 만주 도시는 '근대의 시장'과 총칼 권력이 지배하는 '지옥의 위엄을 간직한 악마'(보들레르)들이 횡행하는 폭력과 죽음의 소굴("진개차(塵芥車, 쓰레기차의 오물) 같은 '수만흔 남녀의 시체')이었다.⁴⁶⁾ 그 휘황한 물신의 근대성은, 더러운 거울 속의 '미소년', 장차 '창부'로 등장할 "순백한 처녀" 들이 암시하듯이 일상의 산 것들을, 또는 순정한 여성과 순결한 꿈을 끄찍한 상품과 죽음의 '비유기적 세계'⁴⁷⁾로 휘몰아 간다.

아직도 '육의 성품' 상태에 빠져 있는 '미소년'과 '순백한 처녀'가 악마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폭력적 현실의 탈출이나 변혁의 시도가 아니다. 그보다 먼저 매우 드문 "SIX FINGER"(여섯째 손가락), 곧 '초현실'로 열린 '육

45) 조은주, 2019, 「만주 모더니즘과 『시현실』 동인」, 『한국민족문화』 70, 90쪽.

46) 두 구호에도 불구하고, 조선 이주민은 하인, 막노동꾼, 가게 점원, 장사꾼, 마약상, 포주 등의 하급 직업에 종사하거나 부랑자로 전락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07-108쪽.

47) 수잔 벅 모스, 김정아 역, 2004,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138-139쪽.

감'의 세계로 몸 던져 보는 것이다. 그 '육감'은 그러나 아직 실재화되지 않은 느낌이자 내면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전위예술론가설"로 표현된 '초현실'의 세계, 브르통을 빌린다면 "동시에 추진되는 여러 삶의 전망"이 가능한 세계를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 1) 자— 그러면 出發하자許可된 現實의 眞空의 內臟에서시키면 그리고 새하얀 그것도 아닌聖母 마리아의 媚笑의 市長으로 가자聖母 마리아의 市場엔白裝甲의 秩序가 市場에서 퍼덕일 뿐이었다.

—「生活的 市街」부분(신동철 합작, 1940.8.28.)

- 2) 記念日 記念日の 幸福을 約束한 肉體의 女人이 雙頭の 假面을 장식하는 날/七色의 슈미즈가 孔雀의 미소를 씨워 나의 海洋의 蜃氣樓를 사라왔다/ (...중략...)
그러나 娼婦는 울고만 잇었다/肉體의 女人은 장식의 歷史가 슬펐다/假面の 女는 살아 잇는 것이 슬펐다

—「娼婦의 命令의 海洋圖」부분(1940.8.28.)⁴⁸⁾

두 시의 배경은 '밤'이지만 단순히 시간상의 '밤'이 아니다. 공격과 살상의 장갑차(白裝甲)와 환금(換金)의 "시간 엮는 시계"(「생활의 시가」)가 지배하고 "치과술 시대"와 "화장술 시대"(「창부의 명령적 해양도」)가 범람 중인 목시록적 죽음과 상품의 '밤'이다. 이 불야성의 '밤'은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이를테면 동서양, 빈부를 막론한 남근(男根)들이 가난한 여성들의 '매춘'과 '나체춤' 소비로 나날의 밤을 지새우던 '음락(淫樂)의 도시'⁴⁹⁾이자 일제 특고(特高)와 각국 간자(間者), 혁명의 코μμ니스트들이 암약하던 하르빈(哈爾濱)의 '밤'을 시의 무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아도 좋다.

48)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의健康術을 사랑한다"이다. 대개 "이健康術"로 옮겨 쓰는데, 바로 위 행인 "여인이 假面아 深夜의 어린애야"에 적합한 문장이 되려면 어떤 사정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너'를 보충하여 "너의健康術을 사랑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듯싶다.

49) 나미가타 츠요시(波瀾剛), 최호영 외 역, 2013, 『월경의 아방가르드』, 서울대출판원, 146-152쪽.

그 상황에서 ‘나’, 곧 ‘산보자 나르시스’는 가장 숭고한 ‘성모 마리아’와 가장 비천한 ‘창부’를 관찰 중이거나 대면 중이다. 세속적이고 평범한 시선이라면 전자를 높이고 후자를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거리 산보자’로서 이수형은 그 획일적 시선과 태도를 버리고 둘의 위상과 속성을 뒤바꿔버리는 심미적·심리적 충격을 발휘한다. “백장갑의 질서”가 횡행하는 “성모 마리아의 시장”과, 허튼 “장식의 역사”를 슬퍼하고 삶의 무의미성에 탄식하는 “창부”, 곧 “육체의 여인-가면의 여사”에 대한 발명이 그것이다. 비유컨대 ‘살아 있는 육체를 비유기적 세계’에 판매하거나 빼앗기는 주체가 ‘창부’에서⁵⁰⁾ ‘성모 마리아’(의 시장)로 뒤바뀐 셈이다.

이런 시선과 존재의 전환은, 첫째, 최상의 복종과 섬김의 대상인 ‘성모 마리아’의 종교적 가치가 “허가된 현실”을 더욱 텅 빈 ‘진공’으로 만들고 있으며, 둘째, ‘돈’을 위해 벌거벗은 그 “창백한 얼굴”로도 “바다와 가튼 신화를 들려주는” ‘창부’의 ‘노동자’가 오히려 끔찍한 세계를 감싸주거나 위로하고 있다는, 벤야민이 말했던 ‘범속한 깨달음’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수형은 총칼과 상품의 영혼 속에 지옥이 날뛰는 것을 “성모 마리아의 시장”이라는 초현실적 이미지 속에 담아냈다. 반대로 종교와 일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심오한 노동자’를 가진 ‘창부’의 위로와 연민을 폭력과 퇴폐, 협잡과 속임수가 횡행하는 파시즘적 일상, 이를테면 “현실에 규약된 성실”과 “아편”, 그리고 “술”과 “밤의 비밀”보다 훨씬 가치 있고 함께 추구할 만한 생명의 “건강술”(「창부의 명령적 해양도」)로 의미화했다.⁵¹⁾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사유의 전환 새로운 현실, 바꿔 말해 ‘초현실’의 발견을 당대 비평가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담당자는 ‘극언(克彦)’으로, 그는 “거리에서 골목으로골목에서 구렁으로어느새 발은 화석이 되”었다는 「돌」(『만선일보』 1940년 8월 18일자)을 발표한 직후 「《시현실》 동인집평」(8.31.~9.5, 총 5회)을 이어 실었다. 12개 쪽지로 비교적 자세하게 ‘초현실주의’론을 정리했지만, 초현실주의자들을 “명예

50) 수잔 벅 모스, 김정아 역, 2004.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139쪽.

51) 보들레르는 그가 관찰하거나 사랑했던 ‘창부’의 동시적이며 상반된 이미지를 ‘상품의 영혼 속 지옥’과 ‘심오한 노동자’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서는 수잔 모스,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242쪽과 253쪽 참조.

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거인” 아닌 “어떤 과도기에 서 있는” “병든 시인들”로 단정했다.(1~2회) 이것은 이수형의 이름 박힌 두 텍스트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창부의 명령적 해양도」의 경우, “화장술”, “건강술” 같은 시어에 대해서는 불명확성과 졸렬한 언어 계산을, 자연 사물(物)과 “공항의 계층”으로 대표되는 서로 분열된 이미지와 감각에 대해서는 “기저를 흐르는 시정신과 시세계의 불투명하고 공허성”을 문제 삼았다.(5회) 극언은 이를 「생활의 시가」를 비평하며 “불투명하고 진득진득한 언어법”으로 명제화했다.(4회) 이를 토대로 내린 「창부의 명령적 해양도」에 대한 최종 결론은 “이러한 ‘초현실’에 있어서의 가병인(假病人)적 무기력은 다시금 모-던이즘의 혼탁성에 환원된다”는 부정성이었다.(3회)

이 비평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만주(국) 시대’로 표상되는 당대 현실의 문제성, 이를테면 “백장갑”으로 대표되는 폭력성과 “성모 마리아의 시장”으로 표상되는 혼탁한 상품성 등에 대한 심각한 이해와 고려 없이 언어적 감각과 이미지 구성만 문제 삼은 것에 있다. 그런 점에서 하루야마 유키오(春山行夫)의 「포에지-론」을 빌려 ‘생동하는 포에지’와 그것을 백지와 동심으로 제출하여 획득한 “현실보다 생생한 다른 하나의 현실”을 더불어 창조해야 한다는 비평적 조언이 훨씬 설득력 있다.⁵²⁾ 잘 알다시피,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특히 ‘경이’를 ‘초현실’ 또는 환상적인 것의 발견과 창조에서 매우 귀중한 요소로 강조했다. 잘된 ‘경이’, 곧 ‘환상’은 “거기에 더 이상 환상적인 것이 없으며, 현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각성시킨다는 점에서 ‘산보자 나르시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득의의 방법이자 기술이다. 그런 점에서 ‘극언’은 표면의 언어 감각과 구성의 비논리성만 문제 삼았다는 비판도 면할 수 없다. 이수형의 ‘환상’이나 ‘초현실’이 항의와 부정의 탄착군으로 기호화했던 광기투성이의 세계사적인 ‘사실의 세기’와 오염되고 왜곡된 이념의 ‘환등기’만 씌워 넣어 대던 만주국의 비참한 현실을 그는 애써 외면했던 것이다.

52) 김우철은 어딘가 실린 이수형의 시론 구절 “작품을 시비하는 것은 작품이 불가해성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해(可解)하지 못한다는 무능을 폭로함에 불과하다”는 말에 대해 “의미로 혼란된 「술·레얼리즘」의 시란 벌써 정통을 써나 사생아의 길로 전락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우철, 「금년도 시단의 회고와 전망-토대를 현실에-4」, 『만선일보』 1940년 12월 18일자)

太陽은 그러케아름다웠스나 印象派畫家들은 서른두개의
舞臺를 꾸미고 그우에서 쏘썩라노를 불렀느니라 이것은 한개귀여운베일이였다.
베일에 靑年畫家들의 핑거-가 湖水를 숨쉬드라 이것은 二十一世紀의 나이팅게-르을
할머니들썩들이자는 行動이드라 한개 원두와가튼 形態에서 무서운 體溫을 어디편
으로 感情化하였다는 것은 比喩가아니였다 그것은 黃昏風景에 젖을줄려는 意味다
썩에서 해마다 鳳仙花는 붉은 요기를 잊지안트니할머니는 힌등을 구부리고 少女의
손썩락을 보기시작하드라 어대간들 썩이 피질안켓니 어대간들 썩이 썩러지질 안
켓니 그러기에 兒孩들은 유리썩박과가튼 湖水에 얼골을비썩워 보는方法을 갖인것
이다 푸른森林을 사랑할수업는 장님에게 美學으로 이야기 말것이다 凋落한 落葉이
아니라 樹液이속으로 흘으는 나무나무의 썩거리를 썩은손바닥으로 어르만지게할
일이다. 水液의합창을 들을 것이다.

—「풍경수술(詩) 부분(1941.12.10.)

‘초현실주의 선언’을 대표하는 명구를 꼽으라면, “산다는 것과 살기를 그친다는 것, 그것은 상상의 해결책이다. 삶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문장이 뒤로 갈 수 없다. 시가 현실과 존재의 시작과 끝에서 있는 ‘삶’과 ‘죽음’에만 집착하다 보면 생명의 열정과 죽음의 nihilism만이 시적 영혼의 언어와 사유, 상상력을 장악할 따름이다. 실제로 이수형의 앞선 작품들에 ‘죽음’과 ‘환란’, ‘우울’과 ‘좌절’의 풍경이 압도적이었다. 다행히 ‘창부’의 연민과 눈물을 타락한 세계를 헤쳐갈 ‘건강술’로 남겨놓음으로써 이수형은 ‘삶’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음을 어두운 거리의 ‘나르시스’에게, 또 쓰러린 고통의 조선 이주민에게 조난 탈출의 신호탄으로 암암리에 쏘아 올렸다. 브르통 자신 ‘초현실주의’를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줄 <보이지 않는 광선>”⁵³⁾으로 자신했던 이유와도 무관치 않은 장면인 셈이다.

「풍경수술」은 앞선 『만선일보』 수록작들보다 무려 1년 넘어 발표된 문제작이다. 전반부에는 “검푸른 가시 창공을 휘젓는 것을 노래할 것”이라는 욕망과 의지

53) 이 단락의 ‘초현실주의’ 인용은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역, 2012,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119쪽.

에 맞게 세상 모든 것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장면들, 그러니까 “삶은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현실 저편의 유토피아, 아니 ‘초현실’의 세계로 몰입하다. 한데 이 장면은 자칫 ‘신만주’, 아니 왕도낙토의 실현을 간구하고 고대하는 ‘국책’의 기호이자 리듬으로 읽히고 수용될 수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시인의 사상과 문학에 치명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천황의 ‘은퇴’로 하사되는 ‘천국’의 이미지로 오인될 수 없음은 ‘풍경수술’이란 제목과 더불어, 마지막 부분의 “푸른삼림을 사랑할수업는 장님에게 미학으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문장, 그리고 “수액의 합창을 들을 것이다”라는 종결부에서 매우 분명해진다.

「풍경수술」의 발표 시기는 우연찮게도 1941년 12월 7일 감행된 하와이 진주만 공습보다 사흘 뒤였다. 물론 한참 전 청탁받았거나 자체 투고된 상황이었겠지만, 10일자 「풍경수술」은 『만선일보』 1면을 장식한 만주국 각 대신 명의의 천황에 대한 감사문, 즉 “대미영선전(大米英宣戰)을 지원(支援), 황공(惶恐), 대맹방협력(對盟邦協力)의 조서(詔書) 환발(煥發)”이라는 문장과 함께 독자대중에게 배송되었다. 이 상황에만 주목하면 「풍경수술」은 체제 협력 시로 자칫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분노의 아방가르드’에 가득한 정치성과 저항성을 당시에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수형에게 ‘풍경’은 폭력과 죽음의 ‘전선총후’-‘총력전’의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술’은 이른바 앞뒤 분간의 권리를 빼앗긴 “장님에게 미학”을 선전·선동하는 허구적 왕도체제(王道體制)를 파괴하기 위한 실천 행위(“수액의 합창”)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꽃잎처럼 흩날려 산화하는 ‘옥쇄’가 삶이 윤리이자 충효의 절정으로 찬양되던 ‘대동아전쟁’의 ‘결전 승리’를 위해 “나의감정이 연인의 손바닥에 음악을 들려주는”(「풍경수술」) ‘수액(의 합창)’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생명선’의 수술이 감행되어야 한다는 사고와 판단은 비윤리성을 넘어서 모든 게 일그러진 망상에 가깝다. 어쩌면 이수형은 그 끔찍한 죽음의 상황을 ‘알리바이’로 끌어 들여, ‘초현실주의’의 또 다른 매혹적 명제 “문학이란 가장 허술한 길이면서 모든 것에 이르는 길 가운데 하나임”⁵⁴⁾을 무소불위의 초국가주의적 권력 집단에게 향의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인지도 모른다. 곧 문자와 서정에 담긴 상상과 기록의

쓸모없음으로 또는 그것으로 위장하여,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푸른 삼림”에 “건강한 검푸른 가시”와 생명성 가득한 “수액”이 서로를 살리는 ‘초현실’의 신세계를 과감히 펼쳐 보였던 것이다.

어쩌면 이 당시의 ‘초현실’로의 「풍경수술」은 이수형이 ‘적의 심장’을 향해 거의 마지막으로 격발할 수 있었던 총알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1942년 무렵이라면 벌써 「예문지도요강」이 혁명의 영혼과 문자를 옥죄고 있었으며, 확전 일로의 전쟁 수행을 위해 종이와 옷감, 음식물 같은 기본적 물자와 생활용품의 소비조차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던 때인 까닭이다. 실제로 『만선일보』 기자 고재기는 재만 조선문인의 근황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간도 도문의 동인지 <시현실(詩現實)>의 이수형 등이 초현실주의에 속하는 시들을 크게 발표하다가 인제는 기가 겨우 붙어 있는 상황”이다.⁵⁴⁾ 이 씩씩한 와중에 거의 7~8개월 만에 아주 흔치 않을 것 같던 또 다른 ‘풍경수술’이 다시 주어졌다. 문제는 그러나 해당 지면이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경하함과 아울러 대동아신질서문화건설에 참여하련다”는 모토를 내세운, 김조규 편 의 『재만조선시인집』이었다는 사실이었다.⁵⁵⁾ 게다가 편자는 만주 조선문학의 출발과 성장이 “도의(道義)의 나라 만주국의 건설”과 함께 해 왔다는 자랑을 드러내놓고 적었더랬다. 이수형은 이런 의도와 목적이 당연히 적혀 있었을 원고 청탁서에 다음 시로 화답했다.

머-ㄴ 湖水奈落의 개흠에 양별이인/少年의 肖像畵는/호을어미 그리워 울고 우는
당나귀 哀歌와 數千年 數萬年 낡은 소리로 울고 우는 뼈꾸기 피어오르는 양-ㅇ 가슴
을여덟개의 찬란한 웃음으로 흔들었으나/누른 나래 퍼-런 나래 부-르근 나래 검은
나래하-연 나래날 개날 개날 개날려가고 날러온/水仙花의 손바닥을두터운 大理石

54)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95쪽.

55) 고재기, 「재만선계문학(在滿鮮系文學)」, 『신만주(新滿洲)』 1942년 6월호. 그는 이 말 앞에 “박팔양, 백석, 유지환, 김조규 등은 모두 시집을 펴낸 중견시인들이지만 현재 모두 거의 시를 쓰지 않다시피 하고 있다”는 말을 전제함으로써 재만 조선 시(인)의 부진을 확진(確診)하고 있다. 당시 『만선일보』 기자였던 고재기의 「재만선계문학(在滿鮮系文學)」 번역은 김장선, 2009, 『만주문학연구』, 역락, 102-106쪽에 실렸으며, 인용 부분은 105쪽이다.

56) 김조규, 1942, 「편자 서(序)」, 김조규 편, 『재만조선시인집』, 김조규 편, 간도성: 예문사.

의 무지개를 거더안고(宿命한 風俗의 秘密을 進行하오/進行하오/進行하오

—「인간 나르시스」 부분(『재만조선시인집』, 예문당, 1942.10.10.)

시의 배경은 이렇다. “어느 해상(海商)의 식창(飾窓)에 피어난 일곱 개의 기억의 미소”가 쇠진하고 “수없는 산화철(酸化鐵)의 우울과 침묵이유리실에 영클리어 가는 황혼”녘에 “오월의 진열창은슬픈 풍속의 실크마스크”로 가득 찼다. 이 가운데 온갖 날개로 날려가고 날려온 “수선화”, 곧 ‘나르시스’는 “날개뚫인 마스크”를 “너무나 그리운 공포”로 생각하며 “숙명한 풍속의 비밀”을 안고 “행진”을 거듭하는 중이다. ‘해상’에서 ‘시장’을, 생략한 “임금의 화장”에서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산화철’에서 전쟁을 떠올릴만한, 그러나 불연속성과 의미의 난해성이 두드러지는 언어와 이미지의 조합군임에는 틀림없는 구성이다.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어인 “숙명한 풍속의 비밀”에서 그가 갈급해 마지않았을 ‘초현실주의’ 시학의 귀중한 문법 가운데 하나인 상귀를 벗어난 ‘위험한 풍경’을 통과하며 얻어지는 ‘초현실’의 ‘진정한 삶’⁵⁷⁾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간 나르시스”라는 제목이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한계점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그’의 “날개”와 “행진”은 훨씬 고백적일 수는 있어도, 확실히 「풍경수술」의 “건강한 검푸른 가시” 및 “수액의 합창”에 비해 그 역동성과 창조성이 떨어진다. 김조규가 강조한 ‘만주국’ 건설의 “기적과 자랑 속에 뮤즈도 자랐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만주 조선(인)문학의 혁신과 성숙이 아니라 ‘국책문학’, 또는 적어도 나라의 도의(道義)와 글쓰기에 대한 배려를 어지럽히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읽혀서 과장될 것 없다.

물론 『재만조선시인집』에는 훨씬 사회성 짙고 비판성이 예리한 「창부의 명령적 해양도」와 그래도 「인간 나르시스」보다는 ‘삶이 다른 곳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노래한 「미명의 노래」도 함께 실렸다. 하지만 두 작품은, 하나, 초현실주의 특유의 문법성 파괴와 이미지나 의미의 의도적 분란이 생산하는 ‘잘 감춰진 의도’의

57)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역, 2012,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110쪽.

능숙한 구사 때문인지, 둘, 같은 공간에서 생산 중이던 일본 초현실주의에 비해 덜 저항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냉혹한 검열의 ‘칼’과 만주 조선문학 건설의 ‘꽃’을 동시에 앞세웠던 『만선일보』의 음산한 사시(斜視)를 벌써 통과한 ‘기성 텍스트’였다. 약간 풍자적으로 말한다면, 『재만조선시인집』에서의 ‘인간 나르시스’는 이 잘 짜인 ‘숙명한 풍속의 비밀’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정신과 언어 모두 검열과 처벌의 선을 넘지 않는 정도의 텍스트를 제출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수형은 시의 제약과 ‘초현실’의 추방이 만주(국)에서 유일한 “허가된 현실”(『생활의시가』)로 주어지던 1942년 가을 ‘시로서의 조선 귀환’을 감행하는 뜻밖의 선택을 실행한다. 이때는 『재만조선시인집』 출간을 한 달 앞둔 때로, 국책문학의 이행에 충실했던 경성(京城) 잡지 『조광』(1942년 9월호)에 ‘신인수첩’ 소재 「소리」⁵⁸⁾가 그의 이름을 달고 전격 발표된다. 한데 신혼 초 생활을 신촌 근처 ‘궁수골’에서 웅색하게 해가야 하는 삶의 애환을 다룬 서정주의 ‘영경귀 꽃’이 바로 위에 배치되어 있다. 잠시 뒤 이야기하겠지만, 두 사람은 어쩌면 1940년 11월~1941년 1월 사이 서정주의 만주, 그것도 연길 체류 시 한 번쯤 만났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 글의 관심사는 이수형이 왜 당시의 등단 절차인 ‘3회 추천 완료’ 형식을 갖추며 ‘신인’으로 펜촉을 가다듬었는지, 또 세 편의 분위기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에 있다.

- 1) 냇가에서 마을서 우리젓머이 얼굴을 부비며 아버지의 사바귀(신발의 함경도 방언-인용자)를 나무나무의 잎사귀를 흔들어 벽을 흔들어 귀에 스미여오는 소리 바다를 불러

—「소리」 부분(『조광』 1942년 9월호)

- 2) 또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기쁨에쉬엿 뉘엿 붉어진 슯탄 얼굴이마을을 붉히고

58) 본문에는 ‘신인사’라는 표지가 달려 있다. 그러나 「기쁨」 「옥이의 방」은 아무 표시 없이 ‘시’란에 배치됐다. 기성 시인임을 인정한다는 표시인 셈이다. 참고로 「옥이의 방」이 실린 10월호에도 조선 청년의 전쟁 참여, 곧 ‘제국 군인’됨을 권장하는 서정주의 편지형 수필 「스무살된 벗에게」가 함께 실렸다.

밤을 흔들어도 붉어 배꼽을 흔들며 흔들며어느 열안을 흘러가꼴목간을 붉
 히는바-르간 빛결이 되어

—「기쁨」 부분(『조광』 1943년 3월호)

- 3) 만세! 소리와 같이 꽃피고만세! 소리와같이 꽃지는時節이면(玉은머-고향
 흠어머님꼬볼어든 등골 뼈며이즐어진 볼따구니를 물크림히 흐린눈으로 보고
 만싶었다.

—「옥이(玉伊)의 방(房)」 부분(『조광』 1943년 10월호)

어려운 한자어와 개념어, 지나치게 난잡한 이미지와 불명료한 감각 등이 거의 보이지 않아 문장 이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내용은 순서대로 아버지 장례 날 풍경, 어로(漁撈)나 노역에서 돌아온 ‘숫탄 얼굴’들을 맞는 기쁨, 과거의 “만세! 소리”에서 “잊어버린 한떨기의 꽃”을 찾으려는 타향 소재 옥이(玉伊)의 굳센 의지(“옥(玉)은 바뀌어”)를 그려냈다. 고향 서사 한가운데에 죽음과 생환, 떠남과 그리움, 사랑과 연민이라는 가장 본원적인 감정을 새긴 셈이다.

이때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꽃’과 그 가족어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다. 사실 이수형 시에 등장하는 ‘수선화’(「백란의 수선화」, 「인간 나르시스」)와 ‘츄-립푸’(「창부의 명령적 해양도」), ‘꽃’(「미명의 노래」), ‘장미’와 ‘봉선화’(「풍경수술」), 『조광』 3편의 “한떨기 꽃”과 그 가족 이미지들은 대체로 비유와 상징의 맥락을 거느린다. 이수형은 산문 「전위(前衛)의 마적(魔笛)은」(上)·(下)(『만선일보』 1940.11.15.~11.16.)에서 처음으로 가을의 코스모스를 보며 “이 쌍에 온지 七년이나 되도록 꽃한번사랑할수업는 生活을 하여온나는 오래간만에 꽃에대한愛着을 느끼는 것”이란 표현을 썼다.

물론 이 감정은 바로 “시나 회화나 어느 예술이든 한가지 경험세계의 재현 자연의 복사든지 관념의 에피고냉인테서는 독자적인 새로운 작품을 생길수업는 것이다”라는 작품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 전환된다. 어쩌면 『조광』 소재 3편의 ‘꽃’과 관련 이미지들은 이 애처로운 상념과 그것을 극복할 새 작품에 대한 욕망이 현실화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런 까닭에 일련의 ‘고향’ 서사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통해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귀향’하려 한다는 ‘옥이’의 내면 풍경을

신화 속 아닌 ‘인간 나르시스’ ‘나’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조형한 시들로 읽힌다.

그럼에도 『조광』의 선택은 시의 열정적 발현 외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인가를 되짚어 보게 한다. 가령 이수형의 「옥이의 방」 앞에는 조선 청년의 학병 지원을 권유하는 편지 형식의 「스무 살 된 벗에게」(『조광』 1943년 10월호)가 전개되고 있다. “자기 몸을 반혀야할 자리를 깨닫게 될 때 죽엄 같은 건 오히려 황홀한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원병에 대한 옥쇄(玉碎)의 강요는 천황을 위한 멸사봉공으로 달려가던, 조선 시인의 가장 오염된 ‘문인보국(文人報國)’의 글쓰기를 대표한다.

그러나 같은 지면에 글을 실었다고 해서 별다른 체제 협력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이수형을 두고 군국주의 체제 옹호의 딱지를 함부로 붙이는 것은 아주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에 현실초월의 ‘조선적인 것’ 탐문과는 거리가 먼 실제의 ‘고향’ 서사와 거기 담긴 ‘향토 의식’의 가치를 호미 바바가 말했던 ‘모방(mimicry)’의 전략과 의미를 통해 제안해 보려 한다. 세 시에 공통적 요소가 있다면 “오직 빛나 흔들여 주는 것”(「소리」), “바-르간 빛결”(「기쁨」), “만세!소리와같이” 피고 지는 “꽃”에 보이는 빛남과 밝음, 심지어 화려함의 이미지들이다. 이것이 식민지 시대의 ‘천황 치세’와 무관하며 오히려 그에 대한 알레고리적 부정과 저항의 표현일 수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

답변에는 일제 말 수행된 재조선 일본 화가의 ‘조선적인 것’을 향한 화풍과 ‘조선미전(朝鮮美展)’에 출품된 조선 화가들의 그림 경향을 살펴보는 게 적절한 도움이 된다. 일제는 당시의 미술 활동에서 과거취(趣)와 향토성 짙은 ‘지방색’ 재현과, 그 대상으로서 낙후된 조선의 생활상과 각종 노동에 시달리는 촌락의 여성과 남성, 한껏 정제된 모습을 통해 조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밀집시키는 기생 그림과 미인도 생산에 주력했다. 일본 화가의 이 그림들은 근대적 군상이나 문명의 조선인에 대한 의도적 무관심의 소산이었다. 따라서 그게 어떤 모습이든 ‘전통’으로 치장된 ‘붕건’적 생활과 풍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인상과 자태는 명백히 “원시적인·개화돼야 할·비위생적인·전근대적인”이라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 아니 동양의 지배자로서 일제의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에 피랍된 상황을 면치 못한다. ‘조선미전’에 출품된 조선 화가들의 작품, 곧 음전한 전통 미인상이

나, 고갱 등의 화법을 빌려 야만과 원시를 초극한 건강성과 야생미를 발산하는 젊은 촌부상이 한편으로는 일본 화풍에 의한 '식민성'과 "지세·기후·풍토' 등에 담긴 '조선심(조선심) 표출'이라는 '민족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양가적 평가에 휩싸이는 근본적 이유도 서양/일본의 오리엔탈리즘과 깊이 연관된다.⁵⁹⁾

유년의 행복한 경험과 성장기의 고통이 함께 묶여 있는 '고향'의 서사, 잃어진 고향과 친밀한 존재들에 대한 기억과 회상, 그리운 마음과 귀환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지방색'과 '향토성'을 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수형은 예의 촌부와 미인도에 담긴, 왜곡되고 굴절된 '조선 여성상'을 답습하지 않았다. 호미 바바의 말처럼, 식민주의 권력의 '식민지적인 것'에 대한 '모방'은 자신들의 권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식민지 타자들을 전유한다. 체제 협력자들의 기호는 식민주의자들의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추종한다는 점에서 그 작품과 정신은 더더욱 퇴폐적이고 세속적이다. 하지만 이수형은 특정화된 명확성을 거부하되 그 진정성만큼은 충분히 고백된 '고향' 고유의 '밝은 것'에 대한 기억과 회상, 그리고 그리움과 귀환을 기쁘게 발성했다.⁶⁰⁾ 요컨대 시인은 그 '기쁨'의 '소리'를 바탕으로 당시 유행하던 규범화된 조선 여성의 이미지와 날조된 감각에 내재적인 위협이 되는, '차이와 반항의 기호'로서 "만세!소리와 같이" 피고 지는 "꽃"을 염원하는 '옥이'의 심미적 발명에 성공한 것이다.⁶¹⁾ 물론 이후 작품 활동이 확인되지 않기에 '신인 추천 완료'라는 단발적 사건으로 맺음된 것이지만, 『조광』의 시 3편에서 '식민주의'와 '식민성'을 동시에 뛰어넘어 심미적·이념적 탈식민주의를 수행하는 예외적 장면을 엿보게 됐다는 말은 그래서 가능해진다.

59) 이 단락의 내용과 인용은 안현정, 2012, 『근대의 시선, 조선미술전람회』, 이학사, 226-264쪽에서 가져왔다.

60) 세 편의 시를 처음 분석한 오양호는 특히 「옥이의 방」에 대해 "담청기라는 노예언어를 통해 가상의 세계에서 독자가 '만세'를 부르는 환상을 은밀히 체험하게"하는 희유한 저항시로 가치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양호, 『1940년대 전반기 재만조선인 시 연구』, 254-259쪽 참조.

61) 이 단락의 '모방' 개념에 대해서는 호미 바바, 나병철 역, 200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178-179쪽의 도움을 받았다.

V. ‘초현실’의 포에지, ‘김기림’-‘서정주’의 ‘아브노-말’

이수형은 1941년 2월 총 10회에 걸쳐 상징주의, 모더니즘, 초현실주의의 관련 이론들과 거기 관련된 국내외의 시를 예로 들어 “동인지 『시현실』에 의거하고 있는” 자신의 “시관(詩觀)과 시단관(詩壇觀)”을 발표했다. 「조선시단(朝鮮詩壇)의 재단면(裁断面)」(1941.2.12.~2.22.)이 그것이다. 당시는 그의 시작(詩作)도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던 때였으며, 『만선일보』에는 ‘개척문학’ 건설의 주장, 만주 ‘선계(鮮系) 문학’의 성격과 현실 파악, 문장보국(文章報國)의 실천으로서 ‘국민문학’에 대한 소개와 안내 등이 실리던 때였다. 이른바 ‘국책문학’ 수행이 만주 조선문단의 윤리로 강제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시현실』 동인의 활동도 “기가 겨우 붙어 있는 상황” 정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일본 예술계에서 벌어지던 일련의 사태, 즉 ‘아방가르드’ 활동에 대한 탄압의 가중, 그에 따른 (반) 자발적 전향 선언의 급증, ‘국민미술’과 ‘국민문학’ 등 국책예술의 창성 조장 현상이 일정하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⁶²⁾

이런 외부 현실은 「조선시단의 재단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듯하다. 그계 검열이든 감시든 억압적 현실의 폭증은 이 평론에서 인간 해방(자유)을 위한 이념 추구의 욕망을 은폐 또는 삭제하고, 주로 “언어를 대상으로 삼는, 언어의 힘을 빌린, 언어의 작업”⁶³⁾에 관련된 리듬과 지성, 감각의 고찰을 전면화시킨다. 글의 순서가 ‘언어관의 착미(錯迷)’, ‘저하된 음울성과 환각성’ 등을 거쳐 ‘회화적』 『묘사적』의 착란, ‘외식적(外飾的) 현실과 감정적 허무’ 등에 이르고, 최종적으로 조선시단의 진단과 평가,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브르통의 ‘『묘사체(妙屍體)』’의 관점에서 김기림의 「해상(海上)」과 서정주의 「행진곡(行進曲)」을 가치화하는 순서를 밟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수형이 강조하는 초현실주의의 문법과 언어, 김기림과 서정주로 대표되는 조선 초현실주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견해

62) 나미가타 츠요시(波濤剛), 최호영 외 역, 2013, 『일경의 아방가르드』, 서울대출판원, 104-107쪽.

63) 황현산, 「상상력의 원칙과 말의 힘」,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역, 2012,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48쪽.

를 비평하는 것으로 그가 주장한 ‘초현실주의론’의 진면목을 엿보기로 한다.

해당 평론에서 이수형의 관심사는 초현실주의 시에서의 ‘포에지’ 구축과 발현에 관한 문제였다. 그 전제로 ‘센티멘탈’한 감정을 배제한 “시학으로써의 과학적인 언어관”의 필요성을 말하며, ‘언어와 어법과 감정이 포에지의 노예된 것’과 반대로 ‘포에지가 언어와 어법과 감정의 노예된 것’ 모두의 저속한 ‘포엠’ 레토릭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 조건으로 첫째, 초현실주의 시에서의 ‘리듬(음률)’ 문제 재고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시의 음악성을 음률의 과다로 따지지 말고, 비록 추상적·개념적 형이상의 대상이나 사실일지라도 “포에지가 의욕하는 ‘아브스트랙션’(abstraction: 인용자) 차원의 세계의 무한성”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포에지’를 포착하지 못한 ‘이미지’는 단순히 ‘묘사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회화적’이란 표현이 적합지 않음을 주장했다. ‘회화성’의 진정한 면모는 ‘화면(畵面) 이외의 차원의 세계’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에 있다는 것, 곧 “‘이미지’라든가 『표면묘사』가 어서케 한 언어로써 어서한 훌륭한 차원의 세계를 건축해 노았느냐?”에서 찾아져야 한다.

시인은 내부와 외부에 잇서 참말로 전체적 입장에서 외부적으로 『맨들어지는 것』을 타파하고 내부적인 『맨드는 것』을 건설하고 또 내부적의 『맨드는 것』을 타파하고 외부적의 『맨들어지는 것』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고도한 창조를 추구하면 시인의 사명은 마땅할 것이다.

—『십삼행 인생』과 『행진곡』 (8)-조선시단의 재단면 (1941.2.20.)

이수형은 ‘포에지’ 구축에 실패한 예로 김기림의 『태양의 풍속』과 김광균 시를 거론했다. 이들은 의미력 설득이나 메타포를 의식적으로 포기했으며, ‘모-던어’로 읽는 독자에게 하나의 ‘찰나적 각성’을 주는 스킵/스릴의 면에만 집중함으로써 저하된 음률성과 환각성의 제출에 머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초현실주의(‘슈트 레알리즘’)를 근대시의 자기 붕괴 과정에서 파생된 허무주의의 일종이자, 근대사회의 병적 징후들에 대한 수동적 반영의 차원으로 이해했던 김

기림을 포함한 선배 세대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비판과 상통한다.⁶⁴⁾ 이수형이 보기에, 외부 ‘만들어지는 것’과 내부 ‘만드는 것’의 상호 소통과 균형을 통한 ‘포에지’의 현현은 단순히 브르통의 “자동올적인 기술법”, 곧 ‘자동기술법’이나 ‘묘시체(妙屍體)’, 곧 ‘우아한 시체’ 놀이의 형식⁶⁵⁾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이는 조선시단의 실험도 마찬가지로, 특히 김기림의 「해상」(『태양의 풍속』)에 보이는 ‘순간’에 대한 “찰나적 효과”의 채집 및 전시를 통해서도 ‘포에지’는 쉽사리 건져지지 않았다는 게 이수형의 주장이었다.

잘 알다시피, 초현실주의와 미래파들은 기성의 고정된 ‘육체’를 새로운 개념의 육체로 변형, 왜곡하면서 거기에 강력한 생명력과 리듬감을 부여함으로써 시의 혁명과 혁명의 시를 동시에 꿈꾸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식민지 조선의 시인/비평가 김기림은 ‘추상과 혼돈, 기하학적 질서와 육체의 생명력’이라는 ‘전위예술’의 방법과 이념을 잘 포착했면서도, 결국은 특정 이미지 중심의 ‘오전의 명랑성’과 ‘현대적 감각’만을 중시했다. 그 결과 과거의 로맨티시즘과 센티멘탈리즘 극복과 부정에 유효했던 신비하고도 혼돈스러운 신화적 메타포를 상실해 가는 한계에 부딪혔다.⁶⁶⁾ 이수형도 김기림의 이런 한계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며, 그 때문에 김기림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아무려나 이수형은 1941년의 시점에서 『태양의 풍속』의 언어와 리듬, 이미지의 실험이 조선시단에 끼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193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초현실’의 개척과 미학적 확장이 더 이상 수행되지 못했음을 매우 안타까워했다.⁶⁷⁾

64) 김유중, 1996, 『한국 모더니즘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260쪽.

65) ‘우아한 시체’ 놀이라는 ‘유희’는 “미리 주어지지 않은 어떤 사물의 결정”을 돕거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실현을 야기할 사건의 예견”을 선취하게 하여, 개인적 사고 공유화와 같은 사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진하는, 초현실주의적 창작 활동의 탁월한 형식이자 방법으로 평가된다. (황현산, 「상상력의 원칙과 말의 힘」,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역, 2012, 앞의 책, 38쪽). 프랑스 ‘초현실주의’ 전공자의 이런 평가를 본다면, 이수형은 그것의 형식적 혁명성보다 내용적 ‘포에지’의 현현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66) 조영복, 2008, 「김기림 시론의 기계주의적 관점과 ‘영화시’(Cinepoetry): 페르낭 레제 및 아방가르드 예술관과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26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11쪽 및 215쪽.

67) 이수형과 「생활의 시가」를 합작했던 신동철(동인지 『맥』과 『시현실』 참여)은 ‘성진’이 고향인 김

한편 이수형은 김기림의 맞은 편에 정지용의 「백록담」 한 구절을 세워놓은 뒤 변창한 시가에 나가 영화를 관람하는 속중(俗衆) 속에는 정지용보다 훨씬 ‘에스프리적인 현대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백록담」의 특성으로 흔히 말해지는 몇몇 요소들, 곧 산문체의 작품이면서도 긴밀하게 짜인 선율을 바탕으로, 특히 시각, 청각, 촉각의 입체화를 통해 선경후정(先景後情)의 자연과 내면의 감각을 그려낸 보수적 이미지즘을 불만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생겨난 부정적 평가가 아닐까 한다.⁶⁸⁾ 실제로 지용의 매우 정제된, 그러나 감각적 이미지에 충실한 『백록담』(1941) 소재의 시들은 초현실주의의 제일 명제인 “이성에 의한 모든 통제가 부재하는,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난, 사유의 받아쓰기”⁶⁹⁾와 좀처럼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 시집의 이미지와 감각들은, 이수형의 도시 중심의 ‘초현실’의 세계에 비춰보면, ‘독백과 같은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오히려 배반하면서 ‘자연의 미학’을 풍부하고 세련되게 모사한 사실성의 작품일 수는 있어도,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초현실’이나 ‘시 현실’의 창안과는 거리가 먼 텍스트로 거북하게 수용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수형은 당대의 조선시단, 특히 초현실주의자들이 이 한계를 넘어설 방법으로 “에스프리”가 작렬하는 ‘시의 현실’, 다시 말해 ‘생명의 연소’로서 ‘포에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시인의 내부적인 생명의 연소를 충분히 자각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이념을 내부적으로 맨드려야 할 것”이라는 명제를 특별히 강조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수형이 그 자신도 독서한 김기림의 그 유명한 평론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인문평론』* 1939년 10월호)에서 강조된 “「모더니즘」과 사회성

기림의 경성고보 제자였다. ‘초현실’의 추구라는 공통성 말고도 이런 인관관계가 이수형의 김기림에 대한 관심과 존경의 촉발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할, 1991, 『정지용·김기림의 세계』, 명문당, 214-220쪽.

68) “『시현실』에 의거한 시단관”이라 했지만, 이것은 『문장』 1회 추천 당시 정지용의 비판에 처했던 『백』과 『시현실』 동인 황민이 평가로부터 영향받은 것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나민애는 이 구도를 “‘친-기림’이자 ‘반-지용’인 모더니즘의 신예들”로 예각화한 바 있다.(나민애, 2014, 「『백』지와 함북 경성(鏡城)의 모더니즘: 경성(京城) 모더니즘의 이후와 이외」, 『한국시학연구』 41호, 한국시학회, 219-226쪽)

69)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역, 2012, 앞의 책, 89-90쪽.

의 종합”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새 방법 찾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아무려나 내외부의 주체가 ‘만든 것’과 ‘만들어진 것’의 종합을 통해 ‘포에지’가 현현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제안으로는 ‘건설’과 ‘생산’의 구호를 앞세워 ‘내선일체’와 ‘오족협화’를 높이면서도, 실제로는 천황 ‘일등신민’만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데에 골몰하던 일제의 군국주의적 식민주의를 객관화하고 비판하기 어려웠던 게 당시의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제약된 상황에서 이수형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 마디씩 언급된 오장환도, 유년기부터 절친했던 이용악도 아닌, 당시 그 둘과 더불어 시의 천재로 불렸던 서정주였다. 그는 미당의 「행진곡」, 그러니까 김기림의 청탁으로 창작되었으나 끝내 실리지 못한 『조선일보』 폐간 기념시인 이 텍스트를 ‘랭보적인 허무’의 계열에 귀속시켰다. 왜냐하면 조선시단의 어떤 시(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브노말(abnormal: 인용자)한 허무’의 시편이었기 때문이다. 이수형이 그렇게 본 까닭은 「행진곡」에 “그 엇든 인생이 지상에서의 삶을 도화역(道化役)의 연극—금제(禁制)의 희극(喜劇)—모든 천문학 육체 최후로는 정의에 대하여까지 무장하고 증오하고 저주”를 퍼붓는 목소리가 울울했기 때문이다.

사실 1940~1941년 사이 미당은 「밤이 깊으면」, 「서풍부(西風賦)」, 「살구꽃 필 때」, 「간조(干潮)」, 그리고 ‘만주’ 3부작 「만주(滿洲)에서」, 「땀둘레꽃」, 「무제(無題)」 등을 통해 거의 분열된 정신 활동에 따른 의미 맥락의 균열과 혼란, 상통하지 않는 이미지, “불기등처럼 서서 울다간스스로히 생겨난 메누리 발톱”(「간조」), “무슨 처음의 복숭아꽃 내음새도 말소리도, 병(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에 보이는 절대적 허무 등을 짧은 시정신의 징표로 내세웠다. 이수형은 어쩌면 미당의 ‘랭보’에 대한 감정, 곧 “고독한 램보…….(…중략…) 참으로 열정적인 어느 새와 가티 그 부절(不絶)의 비상 속에 자기를 연소하며……통일하며, 분해하며, 망각하며, 수입(收入)하며, 날러가는 정열로만 존재하는 정신. 아조 죽어버리는 일이 없는 꿩닉스 고독한 램보오”⁷⁰⁾를 벌써 읽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수형 자신이 ‘성모 마리아’

70) 서정주, 「램보오의 두개골」, 『조선일보』 1938년 8월 14일자.

아닌 '창부'에게서 자기와 이웃 구원의 '건강술'을 발견했듯이, 미당도 시로, 또 삶으로 세상의 모든 생의 형식을 다 살면서도 거기서 절대 허무를 사는 랭보에게서 '시의 영원'에 대한 제조술과 향유법을 배웠다.

같은 시대의 이수형과 서정주는 어쩌면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를 관통하는 시의 문법, 그러니까 "청진·분석·종합 등의 작업 대신에 비논리적인 사고(와 상상)의 자연스러운 움직임"⁷¹⁾을 통해 그 끔찍한 모더니티의 세계를 살아가는 힘과 서정을 공유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수형이 서정주의 「행진곡」에 대해 "「행진곡」의 세계는 내외세계가 어느 정도까지 교류된 고차적인 지적인 허무"라고, 다시 말해 오히려 그 허무를 통해 영원성의 세계를 탐침하는 잘 기획된 '허무'의 언어라고 규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총력전' 수행과 천황의 영원함을 목적하는 '국책문학'이 식민지 조선과 만주를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서정주는 고향 '질마재'에 대한 사실적 회고와 신화적 가치화의 길로, 또 '대동아전쟁'에 참여하거나 전사한 조선 청년 찬양의 문장으로 나아갔다. 이수형도 '향토시' 풍의 고향 서사와 그곳을 향한 그리움과 귀향 서정의 고백으로 자신들의 시적 행보를 간신히 더듬어 나가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과 만주의 두 청년 시인이 우연찮게 조우한 공간이 1942~43년 사이의 잡지 『조광』이었던 것이다.

VI. 결어: 이수형의 잃어진 시간과 텍스트를 위하여

1930년대 중후반 신진시인들의 상호 관계를 이수형과 서정주를 중심으로 그려 보며 그간 논의를 마무리 지어보면 어떨까. 서정주는 1940년 9월 취업 문제로 입만(入滿), 같은 해 11월 말 연길과 화룡 소재 '만주양곡주식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해 두어 달 생활한 후 1941년 2월 초순 조선으로 귀환한 경험이 있다. 그때 미당

71) 마르셀 레몽, 김화영 역, 1983, 『프랑스 현대시사: 보들레르에서 초현실주의까지』, 문학과지성사, 60쪽.

은 어쩌면 시와 삶의 절친이던 이용악, 함형수⁷²⁾와 한 동네(함북 경성)서 자라난 이수형과 연결이나 도문쯤에서 한 번쯤은 만났을지도 모른다. 물론 서정주는 함형수와 이용악에 대한 기억과 회고를 「만주일기」,⁷³⁾ 「함형수의 추억」, 「천지유정」 등에 여럿 남겼지만, 이수형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밝혀 회고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렇지만 미당의 문학적 자서전 「천지유정」을 세세히 읽어보면 서정주와 이수형은 1940년 12월~1941년 1월 사이 만주 도문(圖門)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당은 도문에서 소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함형수를 찾아가 “만주의 그 넓고 깊고 무거운 추위”를 견디는 데 필요한 두터운 외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때 함형수가 “호피 조끼 살 사람한테 데불어다 인사를 시켜”준 한 회사원이 바로 ‘이수형’이었다. 미당은 이수형을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특히 좋아하는, 초현실주의 물도 좀 든 사내로 악수할 때 남의 손을 너무 세계 아프게 쥐는 버릇이 있”던 청년으로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적인 시라는 것도 가끔 써서, 1938년인가 함북에서 낸 초현실주의파의 시 동인의 하나로도 활약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⁷⁴⁾

살바도르 달리의 『나르키소스의 변신』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가 ‘수선화’이며 그 영향과 감각을 질게 반영한 텍스트가 이수형의 「백란의 수선화」임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한편 이수형은 자신의 고향 경성(境城) 가까운 청진에서 창간된 동인지 『맥(縠)』(1938)~서정주도 『맥(縠)』 3호(1938.10)에 「모(母)를 실었다」의 구성원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는 『맥』의 동인이자 같은 고향 출신의 신동철, 『맥』의 실

72) 함형수의 서정주에 대한 평가는 오양호가 발굴, 소개한 「서정주라는 청년」(『초원』 2호, 1939.12)에 잘 드러나 있다. “돈이 있으면 술(酒)을 먹고 돈이 없으면 자는 청년(靑年)이었다/씨허면 이(齒)를 보이며 웃을 때가 더 흥(凶)한 청년”이 그것이다. 미당의 이 모습은 가족의 가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이러한體重을 가슴에안고서 어찌 내가 金剛酒도 아니먹고 外上술도아니먹고 酒甁(甁)이도 아니될수있겠느냐”(서정주, 「풀밭에누어서」, 『비판』 1939년 6월호)에서 착실히 확인된다.

73) 「만주일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줄고, 2014, 「서정주의 「만주일기(滿洲日記)」를 읽는 한 방법」, 『민족문화사연구』 54호, 민족문화사학회 참조.

74) 서정주, 「천지유정」, 『서정주문학전집』 3, 일지사, 1972, 200-201쪽. 미당은 이수형이 “서울 서간 초현실주의자 아닌 이 모라는 어느 시인한테 초현실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술상 위의 매운탕 냄비를 들어얹어 뒤집어썩워 버렸다는 얘기”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있음도 밝혔다.

질적 리더였던 함북 흥원 출신의 김복원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 이수형은 이 인연을 바탕으로 미학적·이념적 친밀성을 더욱 다지며 『만선일보』 지면을 장식한 동인 『시현실』을 결성하고 그 리더로 활약했다.⁷⁵⁾ 신동철과 이수형이 『시현실』 동인의 이름으로 공동 창작하고 발표한 「생활의 시가」는 이들의 밀접한 인간적·문학적 관계를 또렷이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여러 겹의 문학적 사실은 미당이 “한 회사원인 이 청년”이라고 말했던 시인이 이수형이었음을 의심할 나위 없이 드러내며, 두 시인의 직접적 인연과 대면이 만주 도문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또 하나의 문학적 사실로 새롭게 보고한다.

오양호는 서정주와 함형수, 이수형과 함형수의 인연과 우정을 들어 서정주와 이수형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둘이 만주 도문에서 만나 서로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미당이 『조광』 편집자에게 이수형을 소개했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수형이 조선 내 지면 확보를 위해 『조광』에 신인 등단의 투고작을 던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과감하게 제기했다.⁷⁶⁾

만약 오양호의 추측이 옳다면 「『십삼행 인생』과 『행진곡』 (8)-조선시단의 재단면」(『만선일보』(1941.2.12.~2.22.))에서 수행된 「행진곡」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확인되었듯이 둘은 이보다 많아야 한두 달 앞서 만주 도문에서 안면을 튼 사이였으므로 서로에 대한 인상과 기억은 매우 뚜렷했을 터였다. 1941년 2월 만주에서 경성으로 귀환한 미당이 이수형의 저 글이 실린 『만선일보』를 보았다면 내심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른다. 때마침 자신의 첫 시집 『화사집』이 2월 10일 남만서고에서 발행되었으며, 그 소식은 어떤 식으로든 만주로도 타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강력한 기억과 인연이 있어 서정주의 소개가 없었을 지라도 이수형은 종종 미당이 글을 신던 『조광』에 신인 당선을 목표로하며 투고작을 던졌을 것이다.

75) 『맥』 동인과 ‘시현실’ 동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진희, 2018 「만선일보에 실린 시 『시현실』 동인집』과 동인 활동의 문학사적 의의」, 131-136쪽 참조.

76) 오양호, 2021, 『1940년대 전반기 재만조선인 시 연구』, 역락, 243-244쪽.

그 결과로 『조광』 1942년 9월호 목차에 선명하게 인쇄된 “이수형(李秀馨) 신인시첩(新人詩帖) 「소리」”를 『시현실』 동인들에게 들어 보이며 환호작약했음지도 모른다. 같은 잡지에 글을 실었지만 근대 천황제와 그것의 영원함을 목표했던 총력전에 관한 입장이 일치하지는 않거나 심지어 상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수형과 서정주는 상대방의 글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아쉽게도 참조할 만한 어떤 기록이나 증언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연구자와 독자 대중의 상상력에 맡겨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 이수형은 좌파 ‘문맹’으로, 미당은 우파 ‘조선청년문학가협회’로 나뉘어 자신의 미학과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서로 대립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 시 이수형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여 그들의 말을 빌린다면 ‘조국해방전쟁’에 열정적으로 복무했다. 이 점, 서정주가 적어도 친분만큼은 이용악과 함형수에 훨씬 못 미쳤던 이수형을 이름 밝혀 기록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해방 이후 좌우 이념으로 선명하게 갈라선 이수형과 서정주는 시 창작에 몰두하여, 1948년 당시 미당은 『귀축도』(선문사)를 출간했고, 이수형은 『산맥』(현문사) 간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만약 이수형의 『산맥』이 출간되었거나 현재 찾아볼 길 없는 그 지형(紙型)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만주(국) 시대’와 해방기의 시가 함께 묶인 미당의 『귀축도』와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그럴 경우, ‘난해한’ 이수형의 시와 비범한 ‘랭보적 허무’가 울울한 서정주의 시는 식민지와 해방의 서로 다른 환경을 또 서로 다른 이념과 표현으로 걸어간 당대 젊은 시단의 어떤 성취를 흥미롭게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수형의 『산맥』이 미출간되거나 그 지형이 유실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이유가 여기 있다.

한편 북관(北關) 출신들인 이수형, 이용악, 함형수⁷⁷⁾의 동무 관계에 대해서는

77) 서정주는 한 회고담에서 함형수가 귀환 열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열차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풍문을 들었음을 밝히며 매우 애통해했다.(<함형수의 추억>, 서정주, 2017, 『미당 서정주 전집 9: 안 잊히는 사람들』, 은행나무) 월북한 이수형과 이용악은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돌입한 북한문단에서 기쁘게 재회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 각종 문예 관련 사전과 『1930년대 시선』 1~3(『현대조선문학선집』 26~28권)에서 1980년대 중반 복권된 이용악의 이름은 보이지만 이수형은 그 어

“관서(關西), 동만(東滿) 문인과의 교우기”라는 질문에 대해 ‘경성(鏡城)만 해도 “김진세, 신동철, 허이보, 오화룡, 함형수, 함윤수, 이수형 이렇게 많은데 모두 시인입니다”라고 답한 이용악의 말⁷⁸⁾과, 해방기 시 「아라사 가까운 고향」에 ‘형수’와 ‘철’, ‘용악’을 등장시킨 이수형 자신의 회고에 잘 담겨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수형의 「조선시단의 재단면」은 그의 초현실주의론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장으로, 또 1940년대를 전후한 조선과 만주 시단의 젊은 시인의 내면풍경과 교유 관계를 엿볼 수 있는 희유한 자료로 판단된다. 한 가지 아쉬움과 소망을 더한다면, 『만선일보』는 이수형에게 지면이 허락되던 1941년 3월~10월분 및 1942년 12월~1945년 8월분이 현재까지 상실되거나 미발굴된 상태로 남아 있다. 어쩌면 이곳에 이수형, 김복원을 필두로 한 『시현실』 동인의 시들이 더 실렸는지도 모른다. 부디 한국이든 만주든 그 어느 곳에서라도 발굴되어 전면적인 ‘총력전’의 시대로 들어섰던 1943년 이후 ‘만주 조선(인) 문학’과 ‘『시현실』 동인’ 시의 실제와 성취, 그리고 그 한계가 모두 확인되기를 바랄 뿐이다.

디에도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김일성 유일주의에 반하는 남로당 박헌영파라는 족쇄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78) 한설야 외, 「관북, 만주 출신 작가의 『향토문화』를 말하는 좌담회」, 『삼천리』 1940년 9월호, 96-111쪽. 김기림, 김광섭, 박계주, 이복명, 이용악, 이찬, 이현구, 최정희, 한설야, 현경준이 참여했다. 한편 이용악을 중심으로 이수형, 신동철 등과의 교유 관계를 밝힌 연구로는 이경수, 2014, 「관북의 로컬리티와 이용악의 초기 시」, 『한국시학연구』 41호, 한국시학회 참조.

참고문헌

1. 1차 자료

『만선일보』의 이수형 관련 문예 자료

고재기, 「재만선계문학(在滿鮮系文學)」, 『신만주(新滿洲)』 1942년 6월호

김기림, 1988,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김조규 편, 1942, 『재만조선시인집』, 간도성: 예문당

한설야 외, 「관북, 만주 출신 작가의 『향토문화』를 말하는 좌담회」, 『삼천리』 1940년 9월호

안수길, 1999, 「용정·신경 시대」,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서』, 깊은샘

서정주, 2017, 「함형수의 추억」, 『미당 서정주 전집 9: 안 잊히는 사람들』, 은행나무

오양호, 2022, 『1940년대 전반기 재만조선인 시 자료집』, 역락

2. 한국어문헌

김유중, 1996, 『한국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김장선, 2004, 『위만주국시기 조선인문학과 중국인문학의 비교 연구』, 역락

김장선, 2009, 『만주문학 연구』, 역락

김호용, 1997, 『재만 조선인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안현정, 2012, 『근대의 시선, 조선미술전람회』, 이학사

오양호, 2021, 『1940년대 전반기 재만조선인 시 연구』, 역락

이 활, 1991, 『정지용·김기림의 세계』, 명문당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마르셀 레몽, 김화영 역, 1983, 『프랑스 현대시사: 보들레르에서 초현실주의까지』, 문학과지성사

수잔 벅 모스, 김정아 역, 2004,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역, 2012,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호미 바바, 나병철 역, 200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가미야 다다타카(神谷忠孝) 외, 김계자 외 역, 2010, 『〈식민지〉 일본어문학론』, 도서출판 문

나미가타 츠요시(波瀾剛), 최호영 외 역, 2013, 『월경의 아방가르드』, 서울대출판원

김재용, 2012,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본 '만주국' 조선인 문학」, 『문명의 충격과 근대 동아시아의 전환』, 도서출판 경진

김진희, 2016, 「김기림의 초현실주의론과 모더니즘 연구 I」, 『한국문학연구』 52집, 동국

대 한국문학연구소

- 김진희, 2018, 「만선일보에 실린 시 『시현실 동인집』과 동인 활동의 문학사적 의의」, 『현대문학의 연구』 6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 김진희, 2019, 「김북원(金北原)의 문학사적 복원과 해방기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 나민애, 2014, 「『맥』지와 함북 경성(鏡城)의 모더니즘: 경성(京城) 모더니즘의 이후와 이외」, 『한국시학연구』 41호, 한국시학회
- 유수정, 2014, 「만주의 모더니즘시: 안자이 휴유에(安西冬衛) 『군함 마리(軍艦茉莉)』 시론」, 『만주연구』 17집, 만주학회
- 이경수, 2014, 「관북의 로컬리티와 이용악의 초기 시: 이성악, 신동철, 이수형, 반상규와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41호, 한국시학회
- 이성혁, 2011, 「1940년대 초반 식민지 만주의 한국 초현실주의 시 연구」, 『우리문학연구』 34호, 우리문학회
- 장인수, 2006, 「한국 초현실주의 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박사논문)
- 조영복, 2008, 「김기림 시론의 기계주의적 관점과 ‘영화시’(Cinempoetry): 페르낭 레제 및 아방가르드 예술관과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26호, 한국현대문학회
- 조은주, 2019, 「만주 모더니즘과 『시현실』 동인」, 『한국민족문화』 70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최재혁, 2009, 「1930·40년대 일본회화의 만주국 표상」, 『미술사논단』 28호, 한국미술연구회
- 최현식, 2014, 「서정주의 「만주일기(滿洲日記)」를 읽는 한 방법」, 『민족문화사연구』 54호, 민족문화사학회
- SHI CE, 2024, 「만주 조선인 문학 장의 형성과 전개: 『만선일보』 문학 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논문)

4. 일본어문헌

- 金晶晶, 2015, 「『滿鮮日報』と朝鮮語モダニズム詩: 李瑋馨の詩を中心に」, 『九大日文』 25号, 九州大学日本語文学会

투고일: 2025년 09월 12일 심사완료일: 202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25년 10월 16일

■ Abstract ■

Surrealism and Resistance

: Lee Soohyung's Literary Practice in *Manseon Ilbo*

Choi, Hyunsik (Inha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literary work and critical vision of poet Lee Soohyung as published in the *Manseon Ilbo*, the daily newspaper of the Manchurian Publicity Association. While the *Manseon Ilbo* served as an instrument of colonial propaganda, it also functioned as a literary platform for Korean writers seeking to develop a distinctly Manchurian Korean literature. At the paper, Lee headed the *Poem Realism* fellowship and published poems that depicted Manchurian urban life as a site of military domination and commodified desire. Through surrealist imagery, he transformed figures like the city, the prostitute, and St. Mary into symbols that revealed both the violence of colonial modernity and the tenuous hope of Koreans in exile.

Lee's essays on surrealism emphasized the use of vivid imagery accompanied with rhythmic vitality as means of reconciling aesthetic modernism with moral responsibility. However, his later "local" poems in *Chokwang* reoriented his poetics toward the realm of memory and compassion, exposing elements of resistance through recollection rather than avant-garde experimentation. Taken together, these writings reveal the artistic contradictions of a poet seeking literary autonomy within a colonial system—an ambition that ultimately became constrained by the *Manseon Ilbo* platform and the politics of the time. Building on this tension, this research examines how Lee's dual position as both participant and critic of colonial production complicates scholarly understandings of Korean literary modernism in Manchurian Korean literature.

Key words: Lee Soohyung, *Manseon Ilbo*, Manchurian Korean literature, surrealism, *Poem Realism* fellowship, colonial modernism, resistance